

예술의 초대

Since 1992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OVER STORY

연극 '돌아온다'

COLUMN

한국 춤의 동시대성과 로컬리티를 구축하라!

거꾸로 보는 미술사 ㉓

글보다 앞선 표현, 낙서



2024 FEBRUARY Vol.386

2024 BSO 솔로이스츠 체임버 시리즈

BSO Soloists Chamber Series

[3.6(수)~3.7(목)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24. 3.6 WED. 오후 7시 30분

Series I

목관 5중주 & 금관 5중주

PROGRAM

G.Bizet
Opera 'Carmen' Suites

V.Ewald
Brass Quintet No. 1 外 수곡



F. 이주형
Ju-Hyung Lee



Oh 박시연
Si-Yeon Park



Cl 백동훈
Dong-Hoon Park



Bn 양희경
Hee-Kyung Yang



Hn 이민정
Min-Jung Lee



Tp 최원준
Hyuk-Joon Choi



Tp 김희수
Hee-Su Kim



Hn 최창현
Chang-Hyun Choi



Tb 손무정
Mu-Jeong Son



Tba 서영찬
Young-Chan Seo

2024. 3.7 THU. 오후 7시 30분

Series II

현악 6중주 & 현악 8중주

PROGRAM

J.Brahms
Sextet No. 1 in B^b Major, Op. 18

F.Mendelssohn
Octet in E^b Major, Op. 20



Vn 김주영
Ju-Young Kim



Vn 박은경
Eun-Kyung Park



Vn 진혜빈
Hye-Bin Jin



Vn 한유진
Yoo-Jin Han



Va 박지수
Ji-Soo Park



Va 윤솔샘
Sol-Saem Yun



Vc 김세로미
Sae-Ro-Mi Kim



Vc 정지은
Ji-Eun Jeong

주 최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특별후원 BNK 부산은행

입장권 전석 2만원

예매처



문의 051-621-4577 www.bso21.com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BUSAN METROPOLITAN CHORUS



객원지휘 **그랜트 거슨** Grant Gershon
(로스앤젤레스 마스터코랄 예술감독)

부산시립합창단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ABENDLIED

어둠을 밝히는 빛

Program

- Abendlied** Josef Rheinberger
- Heavenly Home** Shawn Kirchner
- Nocturnes** Morten Lauridsen
- Abide with Me** arr. Moses Hogan
- Tiptipa Kemmakem** Nilo Alcala 외 다수



2024. **2.29**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티켓 R석(1층) 20,000원 S석(2층) 10,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051) 607-6000 (ARS 1번)

Eulsukdo Cultural Center Luxury Academy

2024

을숙도문화회관 **명품 아카데미** | 문 | 화 | 강 | 좌 |



대금

강사명	수강료(3개월 10회)	대상	인원(명)	요일 · 시간
강영진	9만원	전연령	15명	토요일 10시~11시30분



사하콰이어클래스 (성악)

강사명	수강료(3개월 10회)	대상	인원(명)	요일 · 시간
김창돈	9만원	41세이상	20명	수요일 14시30분~16시



클래식 기타

강사명	수강료(3개월 10회)	대상	인원(명)	요일 · 시간
고충진	9만원	전연령	15명	수요일 13시~14시30분



EQ-창의 미술

강사명	수강료(3개월 10회)	대상	인원(명)	요일 · 시간
최영희	9만원	초등학교 1~3학년	20명	토요일 15시30분~17시



색소폰

강사명	수강료(3개월 10회)	대상	인원(명)	요일 · 시간
김성철	9만원	전연령	15명	화요일 14시~15시30분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배우는 명품 강좌!”

접 수

방문 접수 또는 전화 접수

강좌기간

2024. 3. 5.(화) ~ 11. 30.(토)

문 의

051. 220. 5826



2024
을숙도

청년 예술 공감

부산지역 청년 음악 예술인을 모십니다.

응모자격

음악분야(피아노, 관악, 현악, 실내악, 성악, 합창, 국악 등)에서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20 ~ 30대 청년 중심으로 구성된
부산지역 예술단체 및 개인

접수기간

2024. 2. 21.(수) ~ 3. 8.(금)
18:00 마감

결과발표

2024. 3. 21.(목) 예정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지원사항

공연료 차등 지원 (50 ~ 150만원)
무료대관, 홍보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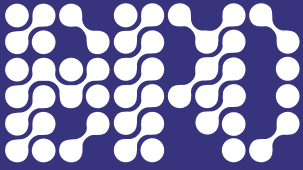
선발예정

10개 공연팀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 051-220-5812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실내악시리즈 I

현의 울림

W. A. Mozart / Duo for Violin and Viola in G major, K.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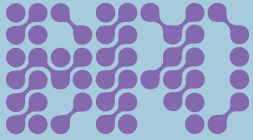
G. Rossini / Sonate a Quattro No.3 in C Major for Two Violins, Cello and Double bass

A. Dvořák / Serenade for Strings

2024년 2월 6일 화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608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in memory of Borodin

보로딘을 위하여

지휘 최희준
바이올린 송지원

보로딘 / "이고르 공" 中 '폴로베츠인의 춤'
글라주노프 / 바이올린 협주곡
무소르그스카-라벨 / 전람회의 그림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티켓 문의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051-607-6000(ARS 1번)

www.bscc.or.kr

Contents



12

거꾸로 보는 미술사 ㉑
글보다 앞선 표현, 낙서술



16

세계의 콘서트홀 ㉒
심포니 센터, 시카고



26

Cover Story
연극 '돌아온다'



- 10 **Column**
한국 춤의 동시대성과 로컬리티를 구축하라!
- 12 **거꾸로 보는 미술사 ㉓**
글보다 앞선 표현, 낙서
- 16 **세계의 콘서트홀 ㉔**
심포니 센터, 시카고
- 20 **Cultural Issue**
당신이 기다리는 '고도'는 무엇인가
- 22 **New Book**
- 26 **Cover Story**
연극 '돌아온다'
- 32 **Preview**
- 38 **Review**
- 42 **Program Guide**
- 48 **BSCC News**

February 2024 Vol.386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일 2024년 1월 25일

발행인 이정필

편집인 이기중

홍보팀장 김명숙

편집위원 김성필, 박소윤, 박진홍, 박창희, 이정호, 최찬열

편집장 정복엽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한국 춤의 동시대성과 로컬리티를 구축하라!

최찬열 춤비평가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 춘천공연예술제 등 기존의 축제뿐만 아니라, 근래 들어 제주, 군산 등 여러 지역에서도 국제 춤 축제가 연이어 생겨나고 있다. 또 국제 춤 마켓의 지역 개최 등, 춤을 둘러싼 각종 축제가 다변화하고 더 활발해지면서, 다종다양한 춤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춤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주지하듯이 각각의 축제가 서로 서로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도 늘 뒤따른다. 아마도 이는 이들 대부분의 축제가 익히 알려진 한정된 범위 안의 국내외 유명 춤 단체와 그들이 레퍼토리로 삼고 있는 볼만한 작품 위주로 구성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테면 예산의 적고 많음과 시기, 장소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를 보이지만, 비슷비슷한 단체와 공연으로 채워진 패키지 상품 같은 춤 축제가 지역만 달린 채 열린다는 지적이다. 국가 간이나 지역 간에 차별화가 요구된다는 말이라.

부산에서 매해 열리는 부산국제무용제도 이러한 평가에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나마 올해는 예년과 달리 프로그램이 비교적 잘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전히 뚜렷하게 차별화된 특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또 올해 첫발을 댄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의 프로그램을 일별해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요컨대 향도 부산에서 개최되

는 축제에 선명하게 내세울 만한 지역적 특성이 부재한다는 말이다. 차별화된 예술적 콘텐츠가 없다면 차별화된 축제도, 마켓도 여전히 요원할 것이다. 그런데 종합 선물 세트같이 기본적인 성격이 비슷한 이런 축제들에 단골처럼 참여하는 단체들을 한 번 흘깃 보기만 해도, 국내외의 유명 현대춤 단체가 대부분이고, 한국춤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단체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현상도 목격된다.

이와 비슷한 점은 공공무용단의 창작 활동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 독립 단체나 개인보다 월등히 나은 조건 속에서 작업을 하는, 전국적으로 산재한 공공무용단이 한국과 지역 춤 세계에서 갖는 사명과 책임은 막중하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그에 걸맞은 활동을 하긴 하는 것일까?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감성에 어필하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창작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될 수 있다. 그래서인지, 근래 이들 공공무용단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객원 안무가들을 앞다투어 초청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초청되는 이들은 대부분 요즘춤 세계에서 나름 명성을 떨치는 젊은 현대춤 안무가들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춤을 기반으로 해서 창작 활동을 하는 유망한 안무가들이 외면당하는 실정이다.

왜 각종 춤 축제와 공공무용단에서는 한국춤 기반 안무가들보다 현대춤 안무가를 선호하는 것일까? 아마도 이는 한국춤이 올드하고 고리타분하다는 편견이 암암리에 두루 퍼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현대춤이 한국춤보다 세련돼 보인다는 선입견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한국춤은 세계 춤의 최신 경향과 흐름에 다소 뒤쳐지는 듯 보이고, 세계 무대에서 ‘먹히기’에 다소 부족하다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춤 세계 일각에서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은 타당한 것일까? 아마도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기에 이즈음 한국춤에 동시대성을 입히는 춤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이리라.

그런데 현대춤에서도 이 못지않게 우려할 만한 점이 발견된다. 곧 세계의 주류 춤 흐름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는 현대춤이 지금 이 땅의 구체적 삶에 바탕을 둔 로컬의 감각을 간과한 채 중심 감각을 쫓는 경향이 엿보인다는 말이다. 한 춤꾼의 몸적 삶이 펼쳐지는 가장 구체적인 공간이 로컬이라면, 로컬의 감각은 바로 구체성의 감각이다. 요컨대 세계 춤의 주류 감성에 치중한 나머지 자기만의 색깔을 잃을 수 있는 현대춤이 한국춤보다 동시대성을 잘 담고 있지만, 이런 로컬의 감각은 이보다 부족해 보인다. 다른 말로 하면, 한국춤은 특수성은 갖추었지만, 보편성이 부족하고, 현대춤은 보편성을 갖추었지만, 특수성이 모자라 보인다. 그렇다면 현대춤과 한국춤, 이 둘이 다 속한 한국 춤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만만치 않은 셈이다. 함께 공동으로 부단하게 해결하고 이루어야 할 지난한 과업이 있는 것이다. 동시대성과 로컬리티를 바탕으로 한, 세계와 다른 독특한 춤 지형을 이 땅에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춤적 전략과 실천이 요긴한 시점이라는 말이다.

동시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한국춤과 로컬의 감각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현대춤, 이는 한국의 춤 세계가 두 트랙으로 풀어야 할 당면한 숙제이다. 이 숙제가 왜 중요한지 이 글에서는 한 가지만 짚어보자. 만약 한국춤이 지금-여기 구체

적 삶의 실상을 반영한 로컬의 감각을 강화하면서, 여기에 동시대성을 가미한다면, 한국춤이 처한 사정은 사뭇 달라지지 않을까. 곧 한국춤이 이미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로컬의 감각을 더 살리면서, 아울러 서구 춤의 주류 감성, 중심 감각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동시대성도 장착한다면, 한국춤은 세계의 어느 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와는 완전히 다른 자기만의 독특한 춤 지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로컬의 감각은 어떠한 특권적인 감각, 주류 감각, 서구 중심의 감성을 거부하는 특정한 지역, 장소의 삶에 근거한 감각이기에, 이는 세계의 춤 지형을 어떠한 하나의 중심으로 체계화, 서열화하는 것에 저항하고 반대하면서, 춤 세계를 다양화하고 민주화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국 춤의 동시대성과 로컬리티를 구축하라! 이는 한국 춤 세계가 당면한 중대한 과업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 과업을 이루는 과정에 한국춤이 일조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구체적인 삶에 밀착한 몸짓, 특정 장소의 사회적 삶이 묻어나는 한국적 몸짓에 동시대성을 입히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는 곧 세계 춤이 어느 하나의 중심 감각, 혹은 주류 감성으로 규범화되거나 중심화되는 것을 막고, 모든 주변 춤이 중심이 되고, 중심 춤이 주변이 되는 춤 세계를 조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이는 곧 n+1의 춤 세계를 n-1의 춤 세계로 다양화시키는 춤 전략과 실천이기도 하지만, 한국 춤 세계를 주변부 지역이나 변방이 아니라, 독특한 지역으로 만드는 길이다. 로컬리티라는 말은 텃세를 부리는 토박이를 연상시키는 폐쇄적 지역주의를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독특성과 차별성, 다양성과 확장성뿐만 아니라, 특수성이라는 의미 또한 아울러 갖는 말이다. 그러기에 n-1의 춤 세계에서 뉴욕도, 파리도, 또 서울도, 부산도, 대구도, 모두 다 지역이면서 동시에 중심이 된다. 중심부도, 구체적인 삶의 장소도, 모두 다 로컬이다. 지역마다 제각각 자기 삶의 장소에 기반한 로컬의 감각을 살리는 춤을 추면서, 동시에 여기에 동시대성을 가미하면 가장 민주적이고 평등한 춤 세상이 구현되는 것이다.

글보다 앞선 표현, 낙서

허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그림은 문자로 인간의 생각을 표현하기 이전부터 나타났다. 어린 아이를 생각해봐도 ‘가나다라’와 같은 한글의 형식을 배우기 전, 크레파스를 손에 꼭 쥐고 선을 긋고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나름의 자기표현을 한다. 아직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 선사 시대의 조상들도 그림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다른 이와 소통하고 바람을 담았다. 그렇기에 그림은 가장 원초적이고도 직관적인 표현방식이자 소통의 도구인 것이다.

문자 이전의 낙서, 동굴화

현존하는 동굴벽화 중 가장 유명한 예는 프랑스 라스코 동굴(Lascaux Caves)의 벽화일 것이다. 아무래도 세계사 교과서에 등장하니 많은 이들에게 익숙하다. 이 동굴벽화는 1940년에 우연히 발견되었고 연대를 측정해본 결과 기원전 17000년에서 15000년 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도판 1] 동굴입구에서 한참을 들어가 만나게 되는 넓은 공간을 이루는 울퉁불퉁한 돌벽에 말과 소를 비롯한 육지 짐승들과 간략화된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지금과 같이 전깃불도 없고 세밀한 붓과 다양한 색의 물감도 없던 시절이었지만, 튀어나온 부분이 살찐 짐승의 배가 되고, 요철이 있는 동그런 벽과 천장에 여러 마리의 짐승들이 그려졌다. 사진과 같이 사실적이지 않지만, 그저 횃불에만 의지한 채 이리저리 움직이는 불빛과 그림자 속에 비친 동물의 그림은 동영상과 같이 생생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 외에도 스페인의 알타미라(Altamira) 동굴벽화도 있고, 아프리카나 아



1 라스코 동굴벽화(출처: 위키피디아)



2 우할리에 동굴벽화(출처: 한국일보)

시아 곳곳에서 동굴 벽화가 발견되었고 현재도 새롭게 연구되고 있다.

그 중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Sulawesi) 섬에는 수많은 동굴 벽화가 발견되었다. 이 벽화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라스코나 알타미라 동굴 벽화들보다 더 오래전에 제작된 것으로 최근 호주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졌다. 술라웨시 섬의 남부는 석회암 지대인 만큼 동굴이 무수히 많은데, 그 중 400여 곳에서 벽화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지역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것은 150만 년 전으로 추정되고 현재 남아있는 벽화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약 4만 년 전에 그려진 것들로 발표되었다. 그중 우할리에(Uhallaie) 동굴 벽화에는 가느다란 선으로 윤곽을 그리고 묘사를 한 멧돼지나 염소와 같은 짐승이 그려져 있다. ^[도판 2] 이렇듯 육지동물을 그렸다는 점은 라스코 동굴벽화와 비슷하지만 좀 특이한

점이 있었다. 이는 인간의 손자국이 많다는 것이다.

동물 그림 주위에 혹은 단독으로 수많은 손자국이 벽에 남아있다. 손을 대고 그 주변에 안료를 발라서 손의 형태만을 남기기도 하고 손 자체에 물감을 발라 찍은 경우도 있다. 손자국이 다른 지역의 벽화에도 간혹 보이기는 하지만, 우할리에 동굴벽화를 비롯한 술라웨시 섬 남부의 동굴벽화에서처럼 수많은 손자국이 집중적으로 남아있지는 않다. 손자국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거나 어떠한 행위의 흔적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왜 동굴벽화들이 그려진 것일까. 아직 기록이 없던 시대이고 너무나 오래전의 일이라 그저 추정을 할 뿐이다. 가장 많이 이해되는 의미는 성공적인 사냥을 기원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동물을 그렸다는 것이다. 혹은 사냥을 나가기 전에 교육의 의미로 동물에 대한 정보나 사냥의 방식을 알려주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그림들은 추운 겨울이나 어두운 밤에 모닥불에 둘러앉아서 지난 무용담이나 혹은 신화나 전설을 이야기하기 위한 훌륭한 시각적 자료가 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동굴벽화에 육지 짐승이 많이 그려졌다는 것은 당시 그 동굴에 살던 사람들이 자주 접하고 원하는 동물들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울주 대곡리 반구대에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암각화가 남아있다. ^[도판 3]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이 암각화는 앞서 우할리에나 라스코의 동굴벽화보다는 최근의 것이지만 선사시대 한반도 지역에 살았던 조상들의 흔적이다. 그런데 이 그림에



3 반구대 암각화(출처: 나무위키)

는 소나 말, 염소와 같은 육지동물도 있지만 그보다 다양한 종류의 '고래'가 표현되어 있다. 범고래, 흰수염고래 그리고 돌고래 등 서로 다른 모양과 무늬, 크기를 가진 고래들이 어느정도는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표현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어미 돌고래 등에 아기 돌고래가 있는 모습에서는 고래가 새끼를 낳는 생태적 지식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고래일까. 당시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높아서, 현재는 다소 높은 지대에 있는 암각화 근처에 해안이 있었다. 그 지역에 살았던 조상들은 고래를 사냥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냥한 고래나 배를 타고 나갔다가 만났던 여러 고래들의 모습을 돌벽을 깎아서 그려두었다. 이렇듯 인간은 오래전부터 그림을 통해 삶의 흔적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동굴이나 마을의 돌벽 등 생활의 터전에 있는 벽에 그림을 남겨두던 습성은 지금도 낙서로 연결된다.

예술이 된 낙서, 그래피티 아트

어린 시절, 집 담벼락에 분필로 낙서를 하면 시간가는 줄을 몰랐다. 그렇게 담이 가득 차면 비가 오길 기다렸다. 소나기가 쇄아하고 내리면 낙서가 깨끗이 지워지고 새로운 도화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필자 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낙서를 좋아한다. 어쩌면 선사의 인류가 벽에 그림을 그렸던 것과 비슷한 욕구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러한 낙서는 종종 예술이 되기도 한다.

그래피티 아트(Graffiti Art)라 불리는 말 그대로 낙서 예술은 공공장소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 비속어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림이라기보다는 그 장소에 어울리는 그림이거나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소개하는 것 혹은 작가가 가진 생각 등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작가로 영국의 예술가 뱅크시(Banksy)가 있다.



4 뱅크시 작업, 영국(출처: 뱅크시 공식홈페이지 <http://banksy.co.uk>)



5 뱅크시 작업, 영국(출처: 뱅크시 공식홈페이지 <http://banksy.co.uk>)

익명의 예술가인 뱅크시는 밤사이 몰래 그림을 그리고 사라지는 것으로 유명하다.

영국의 오르막이 심한 한 동네에는 유쾌한 낙서를 했다.^[도판 4] 지팡이를 짚던 할머니가 재채기를 하자, 마치 폭풍이라고 친 듯 우산도 쓰레기통도 지나가던 행인도 휘청이고, 급기야 집들도 넘어간 듯한 모습이다. 사실상 길이 비탈져 있는 것이지만 동네의 지형을 이렇듯 유쾌하게 표현하였다. 하지만 뱅크시는 보다 사회적인 메시지를 주는 작업으로 유명해졌다.

오래전 근처 공장에서 분진이 계속 날리고, 공기가 오염이 되면서 호흡기 질환에 걸리던 영국의 한 마을이 있었다. 이곳 주민들은 계속 항의를 하고 정부에서 도와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역의 정부기관이나 공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뱅크시는 한 건물 벽에 이러한 그림을 그려두고 사라졌다.^[도판 5] 한쪽 면에서는 아이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입으로 받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우리도 어



6 뱅크시 작업, 우크라이나(출처: 뱅크시 공식홈페이지 <http://banksy.co.uk>)

린 시절 곤잘 해보던 모습이다. 하지만 그 눈의 출처는 다른쪽 벽면에 그려져 있다. 그것은 눈이 아니라 타고 있는 쓰레기에서 나오는 분진과 연기였던 것이다. 이 그림은 얼마디 말보다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을 울렸다. 죄의식 없이 한 행위가 순진한 아이들의 삶과 희망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공장은 분진과 오염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었다. 뱅크시는 이외에도 예술의 방식으로 잘못된 일을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일들에 발 벗고 나섰다. 그리고 2023년 어느 날, 뱅크시는 폭격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지역에 가서 낙서를 했다. 바로 얼마전까지 일상이 이루어지던 곳이었지만 러시아의 폭격으로 파괴되어버린 곳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갔다. 한 소녀의 꿈을 그렸고 전쟁의 잔해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그렸다. 또한 골리앗을 쓰러트린 골리앗처럼, 자신보다 몇 배나 덩치가 큰 상대를 엎어트리는 소년을 표현하기도 했다.^[도판 6] 뱅크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쟁이 아닌 평화에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우리 모두 잠재적인 예술가 일지도 모른다

사실 그림은 여전히 낯설기도 하다. 하지만 언제든 나를 표현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림이다. 자신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무의식 저편의 기억에 하얀 도화지나 벽지에 선과 동그라미로 나와 가족, 친구를 그릴 때 즐거웠던 어린 시절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 그림에 대한 우리의 본성을 앞으로도 일깨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DNA에 새겨진 잠재적인 예술가이니 말이다.

※ 허나영의 <거꾸로 보는 미술사>가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기존에 알던 미술사를 뒤집어보고 그 속에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의미 있을 법한 이야기를 전해준 허나영 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본거지 심포니 센터, 시카고 SYMPHONY CENTER

글, 사진 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심포니 센터(Symphony Center)는 일리노이 주 시카고 루프 지역의 사우스 미시간 에비뉴 220에 위치한 음악 단지이다.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본거지이자 시카고 심포니 합창단 그리고 시카고 시민 오케스트라가 같이 사용하고 있다. 심포니 센터에는 메인 콘서트홀인 1904년에 건립된 2,500석 규모의 오케스트라 홀(Orchestra Hall)과 리허설 및 공연 공간인 번트록 홀(Buntrock Hall), 그리고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Art Institute of Chicago)가 내려다보이는 이벤트 공간인 그레이저 볼룸(Grainger Ballroom) 및 행정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다. 1993년 6월 오케스트라 홀을 대대적으로 개조하고 확장하려는 계획이 승인되었고 1억 1천만 달러(한화 1,400억) 규모의 심포니 센터 프로젝트가 1995년에 시작되어 1997년에 완료되었으며, 1994년 4월 국립 역사 랜드마크로 지정, 1978년부터는 미국 국립 사적지에도 등재되어 있다.

1904년에 지어진 오케스트라 홀은 시카고의 유명한 건축가 다니엘 번햄(Daniel Burnham)이 디자인했다. 새로운 홀은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Chicago Symphony Orchestra: 이하 CSO)의 본거지로 설계되었다. 1904년 5월 1일에 건축이 시작되었고, 1904년 12월 14일에 첫 번째 콘서트가 열렸다. 건물 외관에 '테오도르 토마스 오케스트라 홀(Theodore Thomas Orchestra Hall)'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지휘 데뷔 후 한 달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난 오케스트라 최초의 음악 감독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밖에도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바그너의 이름이 외관의 연회장 창문 위에 새겨져 있다.

홀의 대칭적인 외관은 짙은 분홍색 벽돌로 되어 있으며 흰색 석회석으로 조지아 스타일의 특징적인 기타 장식 요소가 보완되어 있다. 1층 입구는 현관과 메인 로비로



1, 2 심포니 센터, 시카고





3 종신 음악감독 리카르도 무티 4 박스좌석에서 본 발코니 객석 5 상주오케스트라인 CSO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6 심포니 홀

이어지며, 메인 로비는 보자르 아트 스타일로 디자인된 강당으로 이어진다. 시카고에 소재한 가장 큰 악기회사인 리옹과 힐리(Lyon & Healy)가 제작한 최초의 파이프 오르간은 1905년 초에 설치되었으며 이후 1946년 프랭크 J. 사우터(Frank J. Sauter)에 의해 재건되었다.

1907년부터 1996년까지 건물의 9층 펜트하우스는 하워드 반 도렌 쇼(Howard Van Doren Shaw)의 인테리어 건축과 존 워너 노튼(John Warner Norton)의 최초의 벽화를 갖춘 클리프 드웰러 클럽(Cliff Dwellers Club)의 본거지로 사용되었다. 관리 사무실은 1904년에 건축된 유서 깊은 채핀 & 고어 빌딩(Chapin and Gore Building) 내에 있는데, 이 건물은 1997년 개조 공사의 일환으로 심포니 센터 캠퍼스에 연결되었다. 오케스트라 홀은 1910년대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라비니아 페스티벌에서 연주하던 여름 동안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영화관으로도 사용되기도 했다. 이 밖에 버트란트 러셀과 같은 연사들이 오케스트라 홀에서 강의 및 기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UIC 파빌리온과 함께 노벨 평화상 수상자 세계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음향

오케스트라 홀의 음향은 운영되는 내도록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다. 1960년대 후반과 1995년에서 1997년 사이의 심포니 센터 변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메인 홀의 대대적인 리노베이션 공사를 통해 음향 개선사업이 펼쳐졌다. 이는 대체로 성공적이었지만 고음역에서는 추가적으로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당시 리뷰에서 음향학자 로렌스 커크가드(Lawrence Kirkegaard) 감독은 “홀은 이전에 여기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깊이와 넓이로 완전히 새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 특히 낮은 현은 새로운 따뜻함과 견고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고주파수는 여전히 유리처럼 들릴 수 있으며, 높은 현은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습니다.”고 밝혔다.

이제 오케스트라는 전혀 그렇지 않은 부드러운 베이스 사운드를 가지게 되었다. 이전에 시끄럽고 건조한 소리의 근원이던 베이스와 드럼은 새로운 공명과 질감을 갖게 되었다. 바이올린은 더욱 풍부한 색상을 갖게 되었기에 오케스트라 홀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잔향이 훨씬 길어지고 현악기, 특히 낮

은 음역의 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들리고 모든 악기가 훨씬 더 따뜻하며 찬란하게 울려 퍼지게 되었다. 사운드는 다른 전통적인 문체 지점인 발코니 돌출부 아래의 메인 플로어에서 훨씬 더 좋아졌고, 낮은 발코니와 갤러리에서도 전체적으로 훌륭했다.

오케스트라 콘서트가 아닌 피아노 연주회에 대한 리뷰에서 시카고 트리뷴 음악 평론가 존 폰 라인(John von Rhein)은 “... 모든 것이 오래된 홀의 영향으로 기록되었으며 더 좋았습니다. 키보드 주변에 더 많은 따뜻함과 더 많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갤러리의 청취자들로부터도 유사한 보고가 나왔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2024년은 시카고 심포니의 94th 시즌이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LA 필하모닉과 더불어 미국 최고의 교향악단

중 하나인 CSO 시카고 심포니는 매 시즌마다 최고의 협연자와 함께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10/11 시즌부터 무려 14시즌동안 CSO의 음악감독을 맡아온 무티는 지난 시즌 베토벤의 장엄미사와 밀레니엄 파크의 콘서트를 끝으로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 이후부터는 두 시즌마다 6주간 시카고 심포니를 지휘,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종신 명예 음악 감독이 되었다.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인 다니엘 바렌보임(Daniel Barenboim)은 15세에 심포니 홀에 데뷔한 이후 1991년부터 2006년까지 CSO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9번째 음악 감독으로 재임하는 동안 피아노 시리즈에서 80회 이상 피아니스트로 때로는 지휘자로 연주하기도 했다.

23/24시즌 눈에 띄는 프로그램으로는 이번 달 2월,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지휘자 제마 뉴와 함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협연하는 공연이다.





당신이 기다리는 '고도'는 무엇인가

장지영 국민일보 선임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사진제공: 피크컴퍼니

이번 겨울 국내 공연계 최고의 화제작을 꼽으라면 단연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일 것이다. 서울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무대에 오른 '고도를 기다리며'(2023년 12월 19일~2024년 2월 18일)에 80대 원로배우 신구(87), 박근형(83), 박정자(81)가 출연하기 때문이다. 세 배우 모두 60년 넘는 연기 이력에서 '고도를 기다리며'는 처음이다.

이들 원로배우는 2개월 동안 배역을 전담하는 단일 캐스트 출연으로 열정을 불살랐다. 세계 각국에서 공연된 '고도를 기다리며' 가운데 이번 한국 공연처럼 기라성같은 원로 배우들이 출연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그리고 이런 원로배우들의 빛나는 앙상블을 보기 위해 중년층은 물론 젊은 관객까지 몰리면서 연일 매진을 기록했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한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1906~1989)가 쓴 작품으로 1953년 1월 파리에서 초연됐다. 다만 희곡이 쓰여진 것은 1948년부터 1949년 사이이며, 베케트는 1952년 프랑스어로 출판한 이후 이듬해 직접 영어로 번역했다. 2막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나무 한 그루를 배경으로 부랑자 블라디미르(디디)와 에스트라

공(고고)이 하염없이 고도를 기다린다는 내용이다. 두 사람 외에 독재적인 포조와 그의 노예 렉키가 1막과 2막에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진다. 그리고 1막과 2막 끝에 소년이 나와 고도가 못 온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기존 연극과 달리 시공간적 배경이 불확실하며, 줄거리는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다. 베케트 자신조차 고도가 누구냐는 질문에 "내가 그걸 알았다면 작품 속에 썼을 것이다"고 대답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어쨌든 인간의 고독과 소통 부재, 존재의 부조리를 보여주는 이 작품은 초연 직후 논쟁과 화제를 일으키며 다양한 언어권에서도 잇따라 공연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연출가 임영웅이 '고도를 기다리며'를 초연했다. 개막을 앞두고 베케트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들려온 덕분에 전석이 매진되는 등 큰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이 공연의 성공에 힘입어 임영웅은 이듬해 극단 산울림을 창단했다. 이후 '고도를 기다리며'는 2019년까지 50년간 극단 산울림의 대표 레퍼토리로 1,500회 넘게 공연됐다. 단일 작품으로 50년간 지속해서 공연된 것은 국내에선 유례가 없다.

그런데, '고도를 기다리며'가 국내 연극계 거장인 임영웅을 상징하는 작품이다 보니 후배들은 선뜻 도전하지 못했다. 다만 임영웅이 2019년 50주년 공연을 끝으로 은퇴하면서 "새로운 '고도를 기다리며'가 이어지면 좋겠다"고 말한 이후 후배 연극인들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오경택이 연출한 '고도를 기다리며'에는 고고 역의 신구, 디디 역의 박근형, 럭키 역의 박정자, 포조 역의 김학철(63)과 함께 소년 역으로 배우 김리안(27)이 출연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여배우 박정자와 김리안의 출연이다. 국내 '고도를 기다리며' 공연 역사상 여배우의 출연은 처음이다. 박정자가 제작사 파크컴퍼니에 먼저 출연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희곡의 모호성 덕분에 많은 연출가에게 새로운 해석에 대한 도전욕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 극단이 무대에 올리던 '고도를 기다리며'는 어쩔 수 없이 인종차별 철폐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행동하는 지성'인 작가 수잔 손탁이 1993년 보스니아 내전 중 세르비아계 민병대가 포위한 사라예보에서 현지 배우들과 선보인 '고도를 기다리며'는 서방의 지원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과 연결된다. 당시 서방 언론은 무차별 학살에도 불구하고 보스니아 지원에 소극적이던 미국을 비판하면서 '클린턴을 기다리며'라고 썼다. 마침내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1995년 세르비아를 공습하는 등 군사적으로 개입하면서 보스니아 내전이 끝났다. 특히 '고도를 기다리며'는 감옥에서 자주 공연되는 작품으로 유명하다. 1953년 11월 독일 뤼트링하우젠 교도소를 시작으로 미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등 여러 나라의 교도소에서 선보여졌다. 죄수들은 극중 하염없이 기다리는 고고와 디디의 모습에 자신을 투영시켰다. 이들 죄수에게 고고는 '자유였을 것이다. 이런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베케트 자신은 '고도를 기다리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작품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 원칙적으로 연출가들에게 희곡의 지시



사진제공: 극단 신월린

1969년 한국에서 초연된 '고도를 기다리며'와 연출가 임영웅

사항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1988년 네덜란드의 한 극단이 여배우들로만 캐스팅해 공연을 준비하자 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에서 베케트는 "여성은 전립선이 없기 때문"이라는 반대 이유를 들었다. 극 중 디디가 종종 소변을 보기 위해 무대를 떠나는 설정에 대해 전립선 문제가 있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소변이 자주 마려운 이유로 전립선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반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네덜란드 법원은 "여성이 출연한다고 해서 '고도를 기다리며'의 의도를 해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베케트가 1989년 사망한 이후 상속인인 조카 에드워드 베케트는 '베케트 에스테이트(베케트 자산 관리기구)'를 통해 '고도를 기다리며' 등 삼촌의 뜻을 이어나갔다. 즉, 저작권 계약 조건으로 희곡에 쓰여진대로 공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대사의 추가, 삭제, 수정은 안 되며 음악이나 특수효과가 더해져서도 안 된다. 실제로 베케트 에스테이트는 희곡을 변형시킨 예술가(단체)에게 바로 소송을 제기해 공연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자 사후 70년이기 때문에 베케트 에스테이트의 위력은 2059년까지 유효하다.

다만 여배우 출연만큼은 다른 저작권 계약 조항보다 느슨해졌다. 수잔 손탁이 1993년 사라예보에서 '고도를 기다리며'를 공연할 때도 여배우가 포조 역으로 출연하면서 규정은 또 깨졌다. 그리고 2006년 이탈리아 극단이 고고와 디디 역에 여배우들을 캐스팅했다가 베케트 에스테이트와 송사가 벌어졌는데, 이때도 이탈리아 극단의 승리로 끝났다. 이번에 한국에서 '고도를 기다리며'를 연출한 오경택은 재연을 하게 될 경우 여배우 캐스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도를 기다리며'가 인간의 보편적 이야기를 다룬 고전인 만큼 이제 캐스팅에서 성별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무덤 속 베케트는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NEW BOOK



펼쳐낸 춤사위

장정윤 지음/세종출판사/3만 원

“나의 무용작품공연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공연자체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사유하는 삶 그리고 삶을 사유하는 무용으로서 그 공연이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동아대학교 무용학과 장정윤 명예교수(현대무용가)가 1982년부터 현재까지 공연한 작품들 중에서 100여개의 주요 작품을 시대적으로 나열하고 그 의도와 내용 등을 기록한 책 <펼쳐낸 춤사위>를 출간했다. 공연 현장에 대한 기억과 팸플릿 자료를 근거로 엮은 책으로, 춤을 추고 만드는 안무자로서의 사유하는 삶에서 사유하는 무용으로의 여정과 함께 그의 영적 세계를 열고 무대를 펼쳐는 그 과정을 읽을 수 있다. 장정윤 교수는 그동안 무대에서 그의 작품을 접했던 관객은 물론 독자와 글로서 소통하며 무용과 삶에 대한 심미적 지평을 넓히고자 이 책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부록으로는 공연 연혁과 연구논문 목록, 그리고 현 시점에서 본 '무용수의 나이듦'에 대한 그의 에세이를 함께 실었다. 특히 에세이 '무용수의 나이듦'은 타 예술장르와는 다르게 무대가 재한적일 수밖에 없는 고령층의 무용가, 더불어 지역사회 무용계의 현실을 인지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려는 취지에서 그가 특별히 적은 글이다.



한국의 고유 신앙: 영등·수목·칠성

김준호 글/손심심 그림
학이사/1만 7천 원

사라져가는 우리 민속 문화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김준호·손심심 국악인 부부가 전작 '미역국에 밥한 그릇'에 이어, '한국의 고유 신앙: 영등·수목·칠성'을 펴냈다. 한민족의 고유 신앙인 영등, 수목, 칠성 신앙은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 정착되어 남아 있다. 빠른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고유신앙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근간이라는 것을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국악인이자 민속학자인 김준호 작가가 기획, 집필하였다. 이번 책에서도 손심심은 그림을 맡았다. 책의 1부는 '영등 신앙'이다. 한국의 여신 '할미'와 '영등할미'의 탄생 배경을 알려준다. 특히 제주도 탄생 신화의 주역인 설문대할망을 비롯해 남해안의 영등 신앙과 전설, 소리를 다룬다. 2부 '수목 신앙'에서는 나무와 인간의 관계를 살핀다. 성주풀이의 배경과 제사에 쓰이는 향나무 등, 나무의 신성과 중요성을 알리며 전통 문화의 발달을 톺아본다. 3부 '칠성 신앙'에서는 하늘의 별자리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을 밝힌다. 별자리에서 유래된 옷놀이와 성형, 삼태성, 복두칠성 등 우리 별자리를 풀어낸다. 한민족의 고유 신앙에는 어떤 마음이 실려있는지 차분히 들려준다.



전시디자인, 미술의 발견

김용주 지음/소동/2만 4천 원

우리나라 전시디자인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는 김용주 전시디자이너가 10여 년간의 전시 경험을 바탕으로 전시디자인의 세계를 소개한다. 저자는 국립현대미술관 공재 1호 전시디자이너이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장욱진전, 이중섭전, 건축가 정기용 전 등 화제가 됐던 많은 전시를 디자인하고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 여러 차례 수상했다. 저자가 직접 참여하고 진행한 전시를 기반으로 현대미술 전시를 만드는 과정 속에 펼쳐지는 다양한 감각과 사유, 난관 극복과정, 전시디자이너의 고민과 창조적 과정을 풍부하고 깊게 이야기한다. 책에는 미술사가 유흥준이 김용주 전시디자이너가 진행한 이중섭전을 본 감상평이 실려 있다. 유흥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전시장에서 여러 미술관 관장을 만나 중섭의 예술에 대한 감상을 교감하였는데 대화 끝에는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 전시 디스플레이가 언제 이렇게 발전했느냐는 찬사였다. 정말 환상적이다. 100년 전에 세워진 석조건물에 백년 뒤 후손들이 이중섭이라는 ‘백년의 전설’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것을 천상의 중섭은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INVITATION TO THE ARTS

G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C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M 무지크바움 070-7692-0747

B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H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시네바움 010-2774-345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음 557-3369

O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T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E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 KBS부산홀 620-7181

S SMA아트홀 1600-1602



SUN	MON	TUE	WED
<p>안내</p> <p>부산문화회관이 보다 더 나은 시설로 관객과 만나기 위해 무대/시설 점검 및 개선 공사로 공연장별 휴관에 들어갑니다.</p> <p>·대극장, 중극장: 2월 9일~26일 ·챔버홀: 2월~8월 ·사랑채극장: 1월~6월</p>			
<p>4</p> <p>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_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어린왕자' 13:00, 16:00 중 전석 1만원(36개월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5</p>	<p>6</p> <p>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실내악시리즈 I - 현의 울림' 19:30 중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7</p> <p>남구소년소녀합창단 제1회 정기공연 무료/부산남구청(607-6000)</p>
<p>11</p>	<p>12</p>	<p>13</p>	<p>14</p>
<p>18</p>	<p>19</p>	<p>20</p>	<p>21</p>
<p>25</p>	<p>26</p>	<p>27</p> <p>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8회 정기연주회 '보로딘을 위하여'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국악브런치 콘서트 '국악 살롱, Salon' 11:00 중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8</p> <p>히사이시 조 & 지브리 영 'Film & His Own Music' 19:30 대 12만원·9만9천원·6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또는 또모(02-540-2706)</p>

ED	THU	FRI	SAT
	1	2	3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_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어린왕자' 16:00, 19:00 전석 1만원(36개월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7 13회 정기연주회 19:00 (7-4065)	8	9	10
4	15	16	17
11	22	23	24
8 화음의 콘서트 'Music' 19:30 5천원 4만4천원	29 대극장 부산시립합창단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Abendlied-어둠을 밝히는 빛' 19:30 대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E
<p>에브리</p> <p>부산시민회관이 2월 5일부터 22일 까지 상반기 무대시설 점검으로 휴관 합니다.</p>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전시실</p> <p>박수진 개인전 2월 1일(목)-2월 4일(일) 전시실 1</p> <p>부산진(양정)&개금 창조의 아침 미술학원 합동 학생작품 전시회 2월 24일(토)-2월 25일(일) 전시실 1, 2</p> <p>• 문의:부산시민회관 630-5200</p>		
<p>4</p> <p>헬로카봇 뮤지컬 시즌7 '웰컴 투 파라다이스' 11:00, 14:00 대 7만7천원-6만6천원(24개월이상 관람) (주)밝은누리(1566-9621)</p>	<p>5</p>	<p>6</p>	<p>7</p>
<p>11</p>	<p>12</p>	<p>13</p>	<p>14</p>
<p>18</p>	<p>19</p>	<p>20</p>	<p>21</p>
<p>25</p>	<p>26</p>	<p>27</p> <p>부산유스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19:30 소 부산유스오케스트라(633-1949)</p>	<p>28</p> <p>건강노래공연 13:00 대 (재)온사회공헌재단(C...) 심정은 피아노 독주회 'KI...' 소 심정은(010-5830-5...)</p>

THU	FRI	SAT
1	2	3 헬로카봇 뮤지컬 시즌7 '웰컴 투 파라다이스' 11:00, 14:00, 16:30 대 7만7천원·6만6천원(24개월이상 관람) (주)밝은누리(1566-9621) 2024 해동고 신년음악회 '동기들아 얼굴보자' 16:30 소 해동고등학교 총동문회(010-3835-5885)
8	9	10
15	16	17
22	23	24 MBN 오빠시대 콘서트 14:00, 18:00 대 ㈜열린미디어(1588-8919)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시리즈' '홍학의 무도회' 11:00 소 전석 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9		

(010-4476-0170)
 'Xavier Abend' 19:30
 (010-377)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여기서 막걸리를 마시면, 그리운 사람이 돌아옵니다

연극 '돌아온다'

· 작/ 선옥현 · 연출/ 정범철

· 출연/ 강성진, 김수로, 김광경희, 김은주, 유안, 진태연, 리우진, 윤대성, 김민성, 김준호, 김아론, 현혜선, 최가은

일시 3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2일 토요일 오후 3: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좌석 R석 5만5천원, S석 3만3천원
(14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경기도 외곽, 시골 마을의 작은 한 식당, 식당 벽에 걸려있는 손글씨 '여기서 막걸리를 마시면 그리운 사람이 돌아옵니다'. 부족한 듯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그 식당에 찾아온다. 육쟁이 할머니,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는 초등학교 여선생, 집 나간 필리핀 아내를 기다리는 청년, 출가 이후 연락이 끊긴 어머니를 찾는 스님 등 그리운 사람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식당을 찾은 손님들은 막걸리 잔을 가득 채운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지만 각자의 사연에 그리움이 사무쳐 있다.



막걸리 한 잔에 그리움과 위로를 담다

막걸리 한 잔에 진한 그리움과 위로를 담은 감동이 있는 연극 '돌아온다'가 2024년 새롭게 돌아온 따뜻한 봄날, 부산관객과 만난다. 연극 '돌아온다'는 영화, 연극, 연출,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선옥현 작가와 2014년 서울연극제 대상 수상작 '만리향'의 정범철 연출가가 호흡을 맞춘 작품으로, 2015년 초연 당시 제36회 서울연극제에서 우수상과 연출상을 거머쥐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그해 제2회 종로구 우수연극축제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되어 관객들의 사랑과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후 허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되어 2017년 제41회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019년에는 한국·캐나다 문화교류재단의 초청으로 캐나다에서 공연되어 당시 교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전석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수로·강성진 부산에 다시 '돌아온다'

연극 '돌아온다'는 국민배우 김수로가 제작 러브콜을 보낸 작품답게 2018년부터는 김수로, 강성진 등 실력과 배우들이 출연하며 매년 행렬을 이어오고 있다. 2020년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무대에서는 당시 초연작 배우들은 물론, 김수로, 강성진, 박정철, 이아현, 홍은희, 최영준 등 안방극장 배우들이 총출동하며 1,000여 석의 객석을 감동으로 가득 채우기도 했다. 특히 30년지기 우정을 자랑하는 김수로, 강성진 배우는 지난해 (재)부산문화회관이 기획·제작한 창작뮤지컬 '야구왕, 마린스'에서 해설 역으로 더블캐스팅되어 부산관객과 인사를 나누는 바 있다. 일년이 채 지나기 전에 연극 '돌아온다'로 다시 돌아온 두 배우의 '찐케미'를 이번 무대에서 기대해도 좋다.

사람 냄새가 나는 현실에도 있을법한 우리들의 이야기 연극 '돌아온다'. 바쁜 생활 속에 잠시 잊고 지냈던 그리운 사람,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다.



기다림으로 점철된 사람 사는 이야기

조영현 프리랜서 작가

2015년 제36회 서울연극제 우수상, 연출상을 수상한 이래로 여러 차례 무대에 올라 호평을 받아온 연극 '돌아온다'가 부산을 찾는다.

연극 '돌아온다'는 연극과 브라운관을 중흥무진하는 배우 김수로가 프로듀서를 맡은 작품인 만큼 화려한 캐스팅으로도 유명한데, 이번 부산 공연에도 여러 차례 참여했던 김수로를 비롯한 강성진, 김광경희, 리우진 등 중견 배우들과 얼마 전 대학로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린 연극 '포쉬'를 이끈

주역 김아론 등 신예 배우들의 조합으로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이번 작품은 오랜 기간 소극장에서 상연되다가 가장 최근 시즌인 2022년, 규모를 키워 서울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이라는 대극장에서 공연했다. 그만큼 소극장의 장점인 관객과의 호흡과 대극장의 장점인 탄탄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을 다 가지고 있어 극장 규모의 차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음이 증명된 작품이다. 이번 부산 공연에



서는 약 770석의 규모인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특히 이 작품은 배우와 관객의 동시 호흡을 위해 배우의 객석 내 등장을 활용한 연출이 특징인데 3년 4개월 만에 팬데믹 상황이 해제된 지금, 직전 시즌까지 불가피하게 사라졌어야만 했던 객석 등장이 이번 부산 공연에서 부활하게 되는지에도 큰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야기는 시골 낡은 식당(막걸리 집) '돌아온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곳에는 간판처럼 커다란 액자에 '여기서 막걸리를 마시면 그리운 사람이 돌아옵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공연의 메시지를 관통하는 이 글귀는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헛된 바람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등장인물들이 이 낡은 식당에 모여 기다림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어주기도 한다.

이 식당에는 살아서 닿지 못한 연이 한이 된 귀신 부부가 머무르고,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는 여교사, 집 나간 필리핀 아내를 기다리는 청년, 어린 시절 집을 나가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욕쟁이 할머니가 매일 막걸리를 마시러 찾아온다. 손님들에게 막걸리를 한 잔씩 따라주는, 말 그대로 사람 좋아 보이는 식당 주인도 아들로부터 차매를 앓고 있던 할아버지의 실종을 방관하여 결국은 죽게 만들었다는 오해를 받으며 부자지간의 틀어진 사이에 괴로워하는 인물이다. 그들이 한 공간에서 각자만의 기다림을 지새고 있을 때, 웬 주지스님이 생똥맞게도 이 막걸리 집에 나타난다. 스님과 막걸리는 불교 교리에 따르면 공존할 수 없는데, 극 중 스님은 고기 써 칼로 채소는 썰지 말라고 하면서도 능청스럽게 교리상 금지된 음주를 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그러면서 인물들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각자의 그리움과 기다림을 풀어놓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여교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군대 간 아들의 비보가 전해지는 시점에서 가장 극대화된다. 그동안 여교사가 참아왔던 모든 기다림과 기대가 아들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맞닥뜨리는



순간 분노로 바뀌어 표출되고, 그동안 그녀가 주문처럼 외워오던 식당의 간판을 낚아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야 만다. 행위와 감정이 매우 격정적인 장면이지만 부담스럽거나 폭력적이지는 않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 삶을 살아가다보면 본질적으로 그녀가 느낀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관객들이 느끼는 이때 그녀의 감정이 옳이 분노이지만 했을까? 관객들은 그동안 치러왔던 처절한 삶에 대한 사투와 아들이 큰 일 없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여교사를 덮치는 과정을 여과 없이 지켜보며 자신의 기다림과 희망이 깨졌던 경험을 돌아볼 수도 있고, 온몸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그녀를 보며 따라 눈물을 지을 수도 있다.

이 기다림으로 점철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이야기의 결말은 그렇게 희망적이기만은 하지 않다. 현실에서 우리가 그리워하는 사람을 모두 만날 수는 없는 것처럼, 이 식당

에서 아무리 막걸리를 마셔도 그리움이 해소되거나 그 행위가 그리워하는 사람과의 재회를 시켜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사람 사는 세상 이기에, 우리는 희망을 놓고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슬프고도 정감 가는 연극은 결말을 맞은 인물들의 다양한 선택과 희로애락을 통해 보여준다. 특히나 모두의 소망이 이뤄진 마지막 장면이 압권인데, 이 장면이 상상인지 혹은 현실인지는 보는 사람의 몫인 셈이다. 누군가는 이 장면이 현실이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여태까지의 진행상 상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연극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그리고 이 작품의 특성상 정답은 정해져있지 않다. 관객으로 하여금 상상할 여지는 주지만 불친절하지 않은 연극 '돌아온다'는 바로 그런 작품이다.

사람에게 상처 받고, 사람 때문에 도망가고 싶지만,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기다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상과 현실을 이 작품은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공연은 상처 받지 않을 것과 기다림을 통한 위로를

강조한다. 막연하게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 혹은 사람 본인으로 하여금 기다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바라는 것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것을 공연 내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위축된 사회망과 인간 관계가 이제야 복구되고 있는 상황에, 그래도 괜찮다는 다소 상투적일 수 있는 격려와 성과가 없더라도 기다린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흔치 않은 위로를 주는 이번 작품의 메시지는 아주 시의적절하기도 하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랑 받을 수 밖에 없는 따뜻함을 담은 연극 '돌아온다'. 오랜 기다림 끝에, 3월 1일부터 2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단 2회차 공연된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3월의 초입부 가족, 친구, 연인 등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공연장을 찾아 포근한 격려나 그간 품고 살아오던 그리움에 대해 위로를 받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 아니면 많은 말을 담고 있는 막걸리 한 잔도 좋고.



Busan
is good
부산이여 좋다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여기서 막걸리를 마시면 그리운 사람이 돌아옵니다



출연 강성진, 김수로, 김광정희, 김은주, 유안, 진태연, 리우진, 윤대성, 김민성, 김준호, 김아론, 현혜선, 최가은 작 선옥현 연출 정범철

돌아온다

2024. 3. 1(금)~2(토) 금 19:30 토 1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제작 | Double K ENTERTAINMENT 티켓 | R석 55,000원, S석 33,000원 문의 및 예매 | 051-607-6000 www.bscc.or.kr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8회 정기연주회

보로딘을 위하여

2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평소 '나의 일은 과학이고, 음악은 취미이다'라며 스스로 '일요작곡가'라 칭했던 러시아의 작곡가 알렉산더 보로딘. 작곡에 재능을 지녔지만 한번도 음악을 직업으로 선택한 적이 없었던 보로딘은 큐이, 발라키레프, 무소르그스키, 린스키 코르사코프와 함께 '러시아 5인조'라 불리며 19세기를 대표하는 러시아 민족음악 작곡가로 꼽힌다.

보로딘의 기일인 2월 27일 열리는 제608회 정기연주회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그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오페라 '이고르 공' 중 '폴로베츠인의 춤'을 들려준다. 보로딘은 오페라 '이고르 공'을 무려 18년을 공들여 작곡했지만, 끝내 완성하지 못한 채 1887년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그의 절친인 린스키 코르사코프, 무소르그스키의 도움으로 보로딘 사망 3년 후인 1889년 초연되면서 지금까지도 러시아 오페라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막에 등장하는 '폴로베츠인의 춤'은 동양적인 신비감을 지닌 낭만적 선율로 광고, 뮤지컬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면서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한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최고 수준의 바톤 테크닉과 명징한 음악적 해석으로 사랑받는 수원시립교향악단 최희준 예술감독의 지휘로 들려준다. 지휘자 최희준은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지휘과에서 디플롬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후 드레스덴 국립음대 개교 이래 최초로 지



지휘 최희준



바이올린 송지원

휘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독일 전 음대 지휘 콩쿠르(Deutsche Hochschulwettbewerb)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1위, 바트 훔부르크(Bad Homburg) 지휘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라인스베르크 궁 가극장에서 요른 아르네케 작곡의 '세 영웅(Drei Helden)'을 세계 초연하며 베를린의 주요 일간지인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Berliner Morgenpost)로부터 '연주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지휘'라는 호평을 받았다. 최희준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전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전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어서는 보로딘의 계보를 잇는 걸출한 러시아 음악가들의 레퍼토리가 이어진다. 러시아의 후기 낭만파 작곡가인 글라주노

프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화려한 테크닉과 낭만적인 서정성을 지닌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이 협연하며, 무소르그스키의 피아노 곡을 관현악의 마술사 라벨이 편곡하여 관현악의 웅장한 색채감을 더한 '전람회의 그림'으로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협연자 송지원은 악기에 대한 탁월한 이해력은 물론, 생동감 넘치는 음색과 섬세하고 입체적인 해석이 겸비된 매력적인 연주로 세계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일찍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콩쿠르를 휩쓸며 주목받아온 송지원

은 2017 윤이상 국제 음악콩쿠르에서 1위와 함께 박성용영재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2016 레오폴드 모차르트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1위 및 청중상, 2014 중국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1위 및 특별상, 2014 엘리스 앤 엘레노어 신펠드 국제 현악 콩쿠르 1위 및 중국 작품 최고연주상, 2012 샤프트 현악 콩쿠르 1위 및 청중상을 수상하였다. 송지원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와 미국 클리블랜드 음악원 예비학교를 거쳐 커티스 음악원과 뉴잉글랜드 음악원 석사과정 및 줄리아드 음악원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을 졸업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실내악 시리즈 I '현의 울림'

2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24년 올 한 해, 보다 다양해지고 특별해진 실내악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정기연주회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다채로운 실내악 레퍼토리를 들려줌으로써 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존의 '실내악공장'을 더욱 업그레이드하여 올해부터는 '실내악 시리즈'로 관객들과 만난다. 단원들의 연주력을 더욱 가깝고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실내악 연주에서부터 외부의 실력있는 연주자, 그리고 정기연주회 협연자

와 갖는 특별한 앙상블 무대까지 보다 진화되어가는 실내악을 만날 수 있다.

2월 6일, 실내악 시리즈 그 첫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파트 단원들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현악앙상블의 선율을 만끽할 수 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절묘한 조화가 돋보이는 모차르트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이중주 K.423'을 시작으로 로시니가 어린 시절 작곡하여 그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현을 위한 소나타 제3번', 드보르작의 가장 매혹적이고 사랑스러운 작품 중 하나인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들려준다.

- 바이올린(1st) 이은옥, 시명운, 박언정, 신민정, 임지영, 최은혜
- 바이올린(2nd) 우소라, 신효은, 양혜원, 이현재, 한아름
- 비올라 이성호, 권덕진, 이윤하, 홍영선
- 첼로 김판수, 김근아, 서송은
- 더블베이스 배기태

미취학 아동을 위한 우리 아이 첫 클래식!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시리즈

2월 24일(토), 4월 20일(토) 오전 11: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10인 이상 단체 예매시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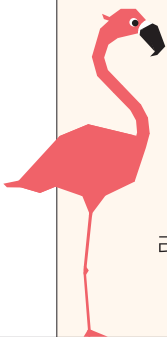
미취학 아동을 위한 우리 아이 첫 클래식 공연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시리즈가 부산을 찾는다.

처음 클래식을 접하는 어린이들이 음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보고 듣고 체험하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무대로, EBS에서 처음 선보여 인기리에 방영됐던 애니메이션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의 주인공들과 함께 음악 가득한 사파리 여행을 떠난다.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는 보금자리를 잃은 농장 동물들이 동물원에 오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국내 최초 실루엣 애니메이션으로, 가족뮤지컬로도 제작되어 어린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번 무대에서 공연장을 찾은 어린이들은 극 중 '도레미 탐험 대장'을 따라 프렌즈 동물원에서 펼쳐지는 시끌벅적한 클래식 음악회에 참석, 다양한 교구를 통해 재미있는 놀이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음악을 체험하며 클래식 음악에 대한 기초이론을 익힐 수 있다. 특히, 공연이 끝난 후에는 로비에서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보는 체험 시간을 가짐으로써 어린이들의 클래식에 대한 흥미와 친근감을 더욱더 높일 수 있다.

2월 24일(토) 흥학의 무도회

현악4중주와 함께 떠나는 흥학 밍고의 무도회로, 무도회장에 참석한 동물 친구들이 악상기호인 포르테(f), 피아노(p)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도록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시작으로 바흐, 헨델, 보케리니, 클라크, 슈트라우스, 브람스의 곡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사랑의 인사(엘가), 칸타타 중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바흐), 첼로 모음곡 제1번 중 '프렐류드'(바흐), 수상음악 중 '알라 혼파이프'(헨델), 미뉴엣(보케리니), 덴마크 왕자의 행진곡(클라크), 피치카토 폴카(슈트라우스), 헝가리 무곡 제5번(브람스), 천둥번개 폴카(슈트라우스)



4월 20일(토) 악어의 양치시간

멋진 이빨을 자랑하는 악어 투스와 함께 음자리표에 따라 칫솔을 위로 아래로 움직이며 클래식 음악에 대한 기초 이론을 배우며, 금관5중주와 함께 신나는 음악여행을 떠난다.

• 프로그램

악어떼(동요), 캐논(파헬벨), 시바 여왕의 도착(헨델), 라수스 트럼본(필모어), 토카타와 푸가(바흐), 죽음의 무도(생상스),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드보르작)

※ 공연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국악브런치 콘서트 ‘국악 살롱, Salon’

2월 27일 화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예술감독
이동훈



가수
최성수



사회
노주원



바리ستا
전주연



BS부산오페라단 싱어즈
소프라노 정유빈, 박예은, 박서진, 전여진

올해로 창단 40주년을 맞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올 한해 다양한 관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그 첫 번째로 2월 2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리는 국악브런치 콘서트 ‘국악 살롱, Salon’은 평일 오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휴식과도 같은 무대로, 바리스타 전주연이 전해주는 커피이야기와 더불어 커피와 어울리는 다채로운 국악곡을 들려준다.

특히 예술감독 이동훈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TBN, 부산MBC 라디오 MC이자 부산 국제영화제 배리어프리영화 성우로 활동하는 노주원이 진행과 토크를 맡아 8090 국악관현악을 대표하는 명곡인 ‘합주곡 제3번(김희조 곡)’을 비롯해 드라마 OST 메들리, 시낭송 등 친근한 무대로 꾸며진다.

첫 곡인 ‘합주곡 제1번’은 국악과 양악을 넘나들며 창작국악 1세대로 꼽혔던 작곡가 김희조가 1982년 작곡한 곡으로 김희조는 전통적인 요소들을 현대 관현악 기법을 사용하여 합주곡 제1번부터 제10번까지 작곡하면서 창작국악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합주곡 제1번’은 우리나라의 민요, 판소리, 산조 등 민간음악을 바탕으로 작곡된 현대 시나위 곡으로, 김희조 작곡가의 대표곡으로 꼽힌다.

이어지는 무대는 ‘Talk & Music’으로 진행자 노주원과 바리스타 전주연의 향기로운 커피 이야기와 더불어 아름다운 봄을 노래하는 강상구 곡 ‘봄을 여는 소리’로 새봄을 앞둔 기쁨과 설렘을 관객과 나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윤해승 해금 수석의 연주와 함께하는 시 낭송에서는 엄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심순덕 시인의 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를 노주원 진행자의 낭송으로 들려주며, 누구나 젊은 시절에 경험해 봄 직한 ‘첫사랑’의 그리움을 회상한 강상구 곡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해금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이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위한 무대로, 소프라노 박서진, 박예은, 전여진, 정유빈으로 구성된 BS부산오페라단 싱어즈가 ‘신아리랑’과 ‘O mio babbino caro’, ‘봄이 오는 길’을 들려주며, TV 드라마 사상 최장수 작품으로 오랜 기간 사랑받았던 ‘전원일기’와 ‘연인(2023년)’, ‘아리소(2009년)’ 등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OST를 국악연주로 편곡,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8090을 대표하는 레트로 감성의 가수 최성수와 함께하는 Talk & Song ‘그땐 그랬지’에서는 1980, 90년대 추억을 관객들과 함께 되새김하며 그의 히트곡인 ‘동행’,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Whisky on the Rock’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와 함께 들려준다.

부산시립합창단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Abendlied-어둠을 밝히는 빛

2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2 그라미 어워드에서 ‘베스트 코랄 퍼포먼스상’을 수상한 로스엔젤레스 마스터 코랄(이하 LAMC)의 예술감독 그랜트 거슨(Grant Gershon)이 부산을 찾는다.

거슨은 지난 2021년 첫 선을 보인 후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부산시립합창단의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2024년 주인공으로 관객과 만난다. ‘유명 지휘자 초청연주회’는 부산시립합창단이 부산 또는 세계에서 활동 중인 지휘자를 초청, 부산 관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신선한 울림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 무대로, 올해는 국내를 넘어 국외에서 활동 중인 지휘자를 초청, 부산시립합창단이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진다. 특히 그랜트 거슨과는 지난해 8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연’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시립합창단과 로스엔젤레스를 대표하는 LAMC와의 협업무대를 통해 인연을 맺은 바 있다.

모험적이고도 대담한, 예술적 리더십으로 극찬받는 지휘자 그랜트 거슨은 현재 미국 서부지역 최대 합창단으로 꼽히는 LAMC의 예술감독으로 22번째 시즌을, LA 오페라의 주지휘

자로 13번째 시즌을 이끌고 있다. 그의 리더십으로 LAMC는 현재 미국 최대의 전문 합창 앙상블로 꼽히며, LA타임즈로부터 ‘이 나라의 가장 흥미로운 합창단’이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그랜트 거슨은 LAMC와 함께 Nonesuch, Decca, Cantaloupe Records 등 주요 레이블과 다수의 녹음을 했으며, 2022 그라미 어워드 ‘베스트 코랄 퍼포먼스상’을 비롯하여 Chorus America의 최고 영예, 2017년 ‘미국 클래식음악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최근에는 LAMC과 오를란도 디 라소의 르네상스 걸작 ‘성 베드로의 눈물(Lagrime di San Pietro)’을 무대에 올려 LA타임즈로부터 ‘음악 역사상 주요한 성취’라는 극찬을 받았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네덜란드 국립 오페라와 존 아담스의 ‘Girls of the Golden West’의 세계 초연무대 및 유럽 초연무대를 이끌기도 했다. 로스엔젤레스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였던 살로넨으로부터 지휘자로서의 멘토링을 받은 거슨은 1994년부터 4년간 로스엔젤레스 필하모닉 부지휘자로 활동했으며, 클라우디오 아바도, 다니엘 바렌보임, 피에르 볼레즈, 구스타보 두다벨, 사이먼 래틀과도 같은 시대를 대표하는 지휘자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가져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서양음악의 중심이 된 종교음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합창곡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인 ‘목소리’가 전하는 섬세하고도 정형화된 울림을 들려준다. 특히 가장 어두운 밤에서 밝은 빛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합창의 색으로 표현, 1부에서는 어둠을 나타내는 무반주 합창음악으로 아카데미한 무대를 선사하고 2부에서는 밝은 빛을 나타내는 활기찬 분위기의 곡에 울동이 가미되기도 하는 다양한 무대연출이 더해져 풍성한 무대를 선보인다.



INTERVIEW

로스엔젤레스 마스터 코랄
예술감독 그랜트 거손

“저는 합창음악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진정으로 우리 시대의 어둠에 빛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로스엔젤레스 마스터 코랄의 예술감독 그랜트 거손이 부산시립합창단 초청 지휘자로 한국을 처음 방문한다. 2월 29일 공연을 앞두고 그랜트 거손 지휘자와 서면을 통해 미리 만났다.

부산에서의 첫 만남, 첫 연주를 앞둔 소감
먼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정말 기대됩니다. 특히 뛰어난 실력을 겸비한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공연할 기회가 주어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의 합창 커뮤니티가 형성된 나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한국은 능력있는 연주자와 합창단이 많은 나라입니다. 지난 여름 저는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연주회·화합의 목소리> 공연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제가 예술감독으로 이끌고 있는 로스엔젤레스 마스터 코랄과 합동으로 진행된 공연이었는데, 당시 제가 느낀 **부산시립합창단은 조화로운 힘과 다양성을 겸비한 합창단**이었습니다. 그 때 단원들과 함께 만든 음악에 대한 기쁨과 희열의 감동은 아직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공연이 끝날 때 수천 명의 관객들이 기립 박수를 보내며 감동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이기선 예술감독과 부산시립합창단의 시간은 지휘자로서도 영광이며 감동스럽고 기쁩니다.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전 세계는 아름다움과 마음의 표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프로그램은 어둠과 치유의 빛 사이의 대비를 연구한 것입니다.** 부산시립합창단의 뛰어난 능력을 알기에, 합창단의 훌륭한 앙상블을 가장 잘 표현함으로써 관객들에게 감동과 환희의 시간을 선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익숙한 곡**(안토니오 로티의 숨 막히는 ‘Crucifixus’, 안톤 브루크너의 아름다운 모테트, 뛰어난 한국작곡가 우효원의 ‘Gloria’ 중 한 곡인 ‘Cum sancto spiritu’)과 **첫눈에(at first sight)’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음악을 결합**하고 싶었습니다. 모

르텐 로리젠(Morten Lauridsen)과 손 키르히너(Shawn Kirchner)는 로스엔젤레스 마스터 코랄의 상주 작곡가로 활동했던 미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작곡가입니다. 저는 특히 로리젠의 ‘Nocturnes’과 키르히너의 ‘Heavenly Home’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이 작품들은 감정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멜로디와 하모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를 더 선택하자면 듀크 엘링턴의 무반주 작품 ‘The Lord’s Prayer’입니다. 이 작품은 그의 깊은 신앙과 헌신적 마음이 잘 반영된 작품으로, 아직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석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연의 제목이기도 하고 전체 구성의 영감이 된 요제프 라인베르거의 ‘Abendlied’는 단순히 지금까지 쓰인 작품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색을 나타내는 합창 작품 중 하나입니다. 저는 뛰어난 실력의 부산시립합창단이 선사할 노래의 아름다움으로 관객의 마음이 감동으로 가득 차고 음악적 영감이 고취되길 희망하고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합창음악의 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합창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관객들이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오는 데는 긴 시간과 수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얻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모든 기회를 음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관객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영혼의 깊은 곳까지 도달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강하게 응집되는 목소리의 결합체인 **합창음악은 우리의 삶에 있어 인류애를 가장 잘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합창음악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진정으로 우리 시대의 어둠에 빛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미래에 대한 강한 의지와 기쁨으로 함께 노래하기로 약속합시다!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크리스마스 캐롤'

메이드인 부산판 시즌 4, 5도 만들자



박창희 경성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스토리랩 수작 대표

동짓날(12월 22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 엄연히 다른 두 날은 '아닌 듯 닮은' 부분이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끄트머리의 경일(慶日)이 그렇고, 나잇살을 더하는 시기라는 게 그렇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 두 날은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요, 인정과 축복의 조우이면서, 액을 쫓아내고 함께 구원을 만드는 날이다.

이 뜻깊은 날에 씩박한 뮤지컬을 봤으니 이 또한 축복이다. 부산시립예술단 4개 단체 연합공연인 '크리스마스 캐롤'(2023년 12월 21일~2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은 내게 동짓날 받은 크리스마스 종합선물세트 같은 것이었다. 스크루지 할매의 탐욕에 서글픔을 느끼다가, 그의 각성과 사랑에 감동하고, 온 누리에 울려퍼지는 캐롤송처럼 따뜻한 공감을 갖게 된 시간이었다. 배우들의 춤과 연기는 빛났고, 교향악단은 섬세했으며, 아름다운 합창 선율은 애간장을 녹였다. 모처럼 만난 오감만족의 복합 뮤지컬이었다.

이날 날씨가 몹시 차가웠다. 부산의 기온이 영하 3도, 세찬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졌다. 두툼한 옷차림에 잔뜩 쓰고 두른 시민들이 종종걸음으로 앞다퉀 공연장으로 들어갔다. 바깥에서 문을 따라 파고든 냉기가 공연장을 훑 덮쳤으나 공기는 이내 따뜻해졌다. 아이들 손을 잡은 가족 단위 관객이 많았다. 어느새 객석이 차곡차곡 채워지고 '부웅~' 뱃고동 소리와 함께 공연이 시작되었다.

크리스마스 축제 준비가 한창인 마을. 추운 밤 메리 스크루지는 자신의 공장에서 노래 연습을 하는 아이들을 매몰차게 쫓아낸다. 메리 스크루지와 청년 에브니저는 배우와 연출로 만나 연인이 되어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이른다. 전쟁이 일어나고 에브니저와 그의 동료 제이콥은 징집되어 전쟁터로 떠난다. 몇 달 후 에브니저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메리는 위기를 겪지만 곧 유전사업으로 큰 돈을 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죽은 동업자 말리의 유령이 나타나고 과거-

현재-미래의 유령이 탐욕적인 스크루지를 각성시킨다. 스크루지는 뒤늦게 사랑과 구원의 의미를 깨닫는다….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 원작의 ‘크리스마스 캐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 이야기다. 인정이라고 눈꼽만치도 없는 스크루지는 지독한 수전노의 대명사다. 1막에서 그는 “크리스마스는 게으른 놈들이나 좋아하는 쓸데없는 날”이라 쏘아붙이고는, “난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구. 너네들이 돈맛을 알아?”하고 되묻는다. 심술이 뚝뚝 묻어나는 어투지만, 스크루지를 욕하고 싶지는 않다. 뒤따르는 유쾌한 반전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극대화시키기 때문이다.

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롤’은 자본세상의 냉혹함을 보여주는 한편 전쟁, 기아, 기후위기, 불평등 문제 등을 넘어서 들추면서 인류가 공유해야 할 사랑의 참 가치를 일깨운다. 우리 주변의 전쟁을 보라.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으레 사랑과 공존, 평화를 얘기하지만,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이스라엘-하마스 살육전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북핵 등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도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크리스마스 캐롤’은 세상 사람들의 더 많은 사랑과 구원을 위한 기도,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 필요함을 일깨운다.

이번에 무대에 오른 ‘크리스마스 캐롤’은 여러모로 화제를 모았다. 이 공연은 찰스 디킨스 원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2021년 첫선을 보였는데, 당시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객석 점유율 90%를 기록했고, 2022년 앙코르 공연에선 3회 전석 매진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공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스토리가 짙었고, 무대를 꽉 채운 음악

과 코러스는 온몸을 떨리게 했다. 단지 3년차 마지막 공연이란 꼬리표가 야속할 뿐이었다.

2023년판 연합공연은 이전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메이드인 부산 공연’이었다.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200여 명의 출연진이 춤과 음악, 노래, 극을 선보이며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고, 토포툼이 관객과도 소통하며 공감폭을 넓혔다.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의 기획과 작사, 연출력도 빛이 났다. 원작의 스크루지 영감이 메리 스크루지 할머니로 둔갑했다. 뻔히 아는 이야기를 각색해 좀더 악독하고 앙칼지면서 탐욕적인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이 부분은 가장 신선하게 다가온 변화였다. 김지용 예술감독은 연출의 변에서 “사랑을 믿는 자는 어제와는 다른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을 지키는 자는 어제와는 다른 세상을 만듭니다. 사랑하십시오. 남김없이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일 것입니다”라는 뜻깊은 말을 남겨 놓았다. 그의 연출 의도를 엿보게 한다. 이야기 자체도 현실적으로 재구성했다. 원작의 개과천선 플롯은 메리 스크루지가 과거로 진입하여 자신이 잊고 있었던 사랑을 발견하는 것으로 개작되었다. 전투 신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종의 의미로 다가왔다.

작곡, 편곡을 맡은 백현주의 존재감도 두드러졌다. 창작 오페라 ‘해운대-장산곶 이야기’, ‘그 이름 먼구름’, 음악극 ‘나혜석’ 등을 작곡한 바 있는 백현주는 이번에도 자신의 역량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낯익은 캐롤송부터 ‘길’, ‘사랑’같은 테마곡까지 대규모 음악극을 완성하는데 그의 역할이 컸다.

메이드인 부산판 ‘크리스마스 캐롤’은 일단 막을 내렸다. 그런데 과제가 하나 던져졌다. 이번 공연 열기와 성과를 어떻게 잇느냐이다. 시즌3으로 끝내기보다 시즌 4, 5로 이어지는 연작 장기 공연물을 고심할 때다. 이번에 보여준 역량을 제대로 뭉치고 활용한다면 제2, 제3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능히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무대는 많다. 부산문화회관이 비좁다면, 현재 건축되고 있는 북항 오페라하우스, 부산콘서트홀(기존 국제아트센터)을 활용하면 된다. 문제는 결국 콘텐츠 아니겠는가. 부산 문화예술의 자존심 같은 공연물 하나 건사할 때도 됐다.



별이 빛나는 부산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박진홍 음악평론가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선사한 탄탄한 구성의 실내악 페스티벌

갑진년의 새해가 갓 밝아온 1월 5일부터 보름 동안 부산문화회관 중극장과 챔버홀에서는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이 열렸다. 모두 7개의 무대를 선보였는데, 스테판 피 재키브의 바이올린 협연 무대를 시작으로 첼로와 발레의 앙상블, 세계 정상급의 젊은 연주자들이 만들어 낸 듀오, 콰르텟, 퀸텟의 하모니, 부산 지역 대학과 영재원에서 실력을 키우고 있는 셋별들의 무대, 바이올리니스트 대니구의 토크 콘서트,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친친탱고와 콰르텟 BCMS의 열정적인 무대, 그리고 서울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정상급 연주자들이 만들어 낸 폐막 연주까지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번 챔버페스티벌은 세계적 연주자, 교수, 지역 음악가, 그리고 실력을 겸비한 학생들까지 여러 가지 색으로 반짝이는 별들이 만들어 낸 멋진 무대를 만나볼 수 있었다. 특히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영화음악이나 흥겨운 탱고, 협주곡, 2중주, 4중주, 5중주 등 다채로운 구성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중 인상 깊었던 두 무대를 소개한다.

음악이 시가 되고, 시가 음악이 되어

스테판 피 재키브가 부산에서 갖는 첫 단독 무대에서는 부산대 김동

욱 교수가 이끄는 부산 챔버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추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으로 무대가 열렸다. 익숙한 템포 보다는 살짝 빠르게 느껴졌는데, 템포에 더해 다이내믹이 화려하게 움직이며 훨씬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흐름이 느껴졌다.

이어서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스테판 피 재키브가 등장했다. 스테판은 인상적인 프로필을 가진 연주자이다. 12살에 성공적인 데뷔를 치러내고 이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많은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가졌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계에서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았지만 미국 대학수능시험인 SAT에서도 만점을 받고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 입학할 정도의 수재였다. 한국계 미국인이며 할아버지가 시인 고 피천득 선생, 그의 부모님이 모두 세계적인 물리학자라는 점 또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점이기도 하다.

이번 챔버페스티벌에서 스테판은 이성과 감성이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첫



곡으로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을 연주했다. 모차르트의 풍부한 음악적 아이디어를 더 이상 잘 표현할 수는 없을 연주였다. 음 하나하나에서 생명력이 느껴지고 각각의 프레이즈들이 숨쉬며 자신의 이야기를 읊조리듯 자연스러웠다. 부드럽지만 강렬하고, 유연하지만 고집스러우며, 조용하지만 분명한 반어적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뒤섞였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는 동안은 오로지 중극장의 넓은 공간 안에 연주자와 나만이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일었다. 스테판의 숨소리, 손끝에서부터 시작되는 크고 작은 움직임들이 도드라지고 주변이 흐리게 보일 정도였다. 무엇에도 구속됨이 없이 자유로운 몸짓과 감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 주는 모습이 기억에 새겨졌다.

별빛이 은하수처럼 빛났던 부산

'별이 빛나는 부산'은 부산 챔버페스티벌의 부제와

도 일치하는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스타 음악가들의 실내악 무대로 꾸며졌다. 이날은 특히 젊은 여성 관객들이 특히 눈에 띄었는데, 연주자들의 팬덤을 실감하는 자리였다.

첫 곡으로 개막 공연에서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했던 스테판 재키브와 메네스 음대와 줄리어드 음대에서 유학하고, 지금은 뉴욕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김윤아가 모차르트의 2중주를 연주했다. 다른 악기 반주 없이 바이올린과 클라리넷만으로 연주하는 음악에 관객들은 연주자와 함께 호흡하고 움직이며 음악 속으로 몰입했다. 스테판의 바이올린이 만드는 섬세하면서도 부드러운 울림과 클라리넷의 풍부하고 무결한 표현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졌다. 클라리넷은 저, 중, 고, 최고 음역으로 나누어 볼 때, 각각의 음역대에 따른 음색의 특징이 확연히 구별되는 악기이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로 드라마틱한 표현이 담긴 음악을 만들어 내기에 적합하다. 김윤아는 각 음역대가 가진 음색의 특징을 부드럽게 녹여서 편안한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자유로운 테크닉과 우아한 표현, 그리고 바이올린과의 앙상블이 관객들의 큰 감동을 자아냈다.

이어서 드보르작의 '아메리칸'을 스테판 피 재키브, 대니 구, 앤드류 링, 요나 김이 연주하였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연주자들이 하나의 곡 안에서 호흡을 맞추어 만들어 내는 장면은 자유로움과 다채로움으로 가득했다. 1바이올린의 섬세함과 경쾌함, 2바이올린의 부드러움과 편안함, 비올라의 독창적인 표현, 첼로의 열정과 유연함이 어우러져 어떤 '아메리칸'보다 흥미진진함을 선사했다. 마치 높이 솟은 빌딩들이 늘어선 뉴욕의 중심가를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곡으로 브람스의 '클라리넷 5중주'가 연주되었다. 클라리넷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1, 2바이올린이, 오른쪽에는 비올라와 첼로가 자리했다. 이 곡은 브람스 음악적 삶의 정점을 보여 준 곡인데, 부산의 무대에서는 자주 들을 수 없는 곡이기에 관객들은 더욱 관심을 가졌다. 현악기들은 역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 위에서 클라리넷은 색다른 빛을 발하며 깊은 슬픔에 빠진 듯한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했다.

부산 챔버 페스티벌은 해마다 새로운 지평을 넓혀 가며 변화, 발전하고 있다. 많은 감동을 준 올해에 이어, 여덟 번째 부산 챔버페스티벌에서도 세계와 부산의 별들이 함께 빛나는 아름다운 실내악의 향연을 기대한다.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어린왕자**



일 시 | 2월 3일 토요일 오후 4:00, 7:00, 4일
일요일 오후 1:00, 4:0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극단이 2024년 첫 무대로 선보이는 어린이 뮤지컬 '어린왕자'.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극단이 마련한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출신의 어린이들이 직접 출연하는 작품으로, 지난해 10월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20여 명의 어린이들이 3개월간의 트레이닝을 거쳐 극단 단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올해 무대에서는 온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어린왕자'로 관객들과 만난다.

- 원작/생뿍주베리 • 작사, 연출/김지용
- 작곡, 편곡/전현미 • 안무/홍충민

헬로카봇 뮤지컬 시즌7
웰컴 투 파라다이스

일 시 | 2월 3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4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대극장
입 장 료 | 7만7천원·6만6천원(24개월이상 관람)
문 의 | **썬밝은누리 1566-9621**



매 시즌마다 흥행열풍을 일으켰던 어린이들의 영원한 친구 '헬로카봇'을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헬로카봇' 뮤지컬 7번째 시즌공연 '웰컴 투 파라다이스'.

지난 2015년 초연한 '헬로카봇' 뮤지컬 시리즈는 실물 크기 로봇의 등장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으며, 이번 시즌7 '웰컴 투 파라다이스'는 극중 여행을 떠난 주인공 차탄과 친구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동물들을 해치려는 악당 일당과 맞서 싸우는 내용으로, 환경과 동물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어린이들에게 전한다.

특히 무대 위 카봇들의 액션을 보다 정교하게 선보이기 위해 홀로그램 기술을 접목시켜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실감나는 액션을 선보인다.

히사이시 조&지브리 영화음악콘서트
Film & His Own Music

일 시 | 2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12만원, S석 9만9천원
A석 6만6천원, B석 4만4천원
문 의 | (취)도모 02-540-2706



베니시영화제 최우수 영화음악상을 수상한 영화음악의 거장 히사이시 조의 음악세계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히사이시 조&지브리 영화음악 콘서트'.

'Film & His Own Music'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대중들이 가장 사랑하는 히사이시 조의 지브리 스튜디오 영화음악에서부터 쉽게 만날 수 없는 히사이시 조의 오케스트라 자작곡까지 히사이시 조의 음악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 지휘/송민규 • 피아노/임현진
- 연주/TMO 또모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심정은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2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소극장**
문 의 | 심정은 010-5830-5377



U.S. New York Arts Society Korea Conservatory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심정은 독주회. 심정은 독일 아쿠스부르크음대 예술가전문과정, 뉘른베르트크음대 최고 연주자과정, 프랑크푸르트음대 기악 및 성악교육학, 마인츠음대 가곡반주 및 반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독일의 다수 음악학교에서 강사 및 반주자로 활동하는 한편, 앙상블 Konzertgebräu 피아니스트 등 독일 및 유럽에서 전문연주자로 다양한 무대에 서었다. 이번 무대에서는 쇼팽, 라흐마니노프, 거쉰, 프로코피에프 등 다채로운 곡으로 깊은 감성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쇼팽/야상곡
- 라흐마니노프/환상소품 중 '엘레지'
- 거쉰/렙소디 인 블루
- 프로코피에프/피아노 소나타 제7번 작품 83 등

아지무스오페라단 신춘음악회
The Best of Opera

일 시 | 3월 2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1층) 3만원, S석(2층) 2만원(예매 시 20% 할인)
문 의 | (사)아지무스오페라단
010-9550-4649



전문예술법인 아지무스오페라단이 마련하는 신춘음악회.

'The Best of Opera'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비롯해 '돈 조반니', '리골레토', '잔니 스키키', '파우스트', '피가로의 결혼', '라 보엠', '투란도트' 등 유명 오페라의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 연출/이병용 • 피아노/최여진, 김소영
- 소프라노/이은미, 주선영, 한인숙, 양근화, 이지은, 이진영, 박현진, 이연진, 박해미, 정애린, 박나래
- 메조소프라노/박소연, 성미진, 손혜은
- 테너/임성규, 김준연, 김준태, 박성백
- 바리톤/최대우, 윤풍원, 이석영
- 베이스/박순기, 이기백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FESTA

일 시 | 3월 2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8만8천원, S석 6만6천원
A석 4만4천원
문 의 | 아트인뮤직 02-525-4420



빛나는 선율의 마법사, 현 시대 최고의 영화음악 거장 히사이시 조의 음악세계를 만날 수 있는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FESTA'.

지휘자 임동국이 지휘하는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랜 세월 사랑받고 있는 히사이시 조의 대표작을 통해 지브리 영화의 모든 순간의 감동을 느끼게 해줄 그만의 따뜻한 감성을 풍부한 사운드와 60인조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빛나는 스토리를 따라 히사이시 조의 음악적 세계관을 보다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교향모음곡을 들려준다.

게네랄파우제 2월 공연

일 시 |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7:00
(1일은 오후 9:30) **게네랄파우제**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게네랄파우제 070-4177-3927

클래식부터 재즈 및 크로스오버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게네랄파우제 2월 무대.

1일(목) 오후 9:30 A trip of Sax trio



베이스스트 임채흥, 드러머 신동진, 색소폰리스트 신명섭으로 구성된 162st trio의 재즈 공연.

프로그램

I hear a Rhapsody, How deep is the ocean, All or nothing at all, Body and soul

2일(금) 오후 8:00 Now Jazz



바이올리니스트 조혜윤과 재즈 피아니스트 민주신이 함께 기획한 재즈 프로젝트 'Now Jazz'.

• 바이올린/조혜윤
• 피아노/민주신

• 기타/김경모 • 베이스/김대경
• 드럼/고명석

3일(토) 오후 7:00 Merry go round of life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들만의 특색있는 재즈 연주를 들려주는 이달현 트리오의 무대.

• 기타/이달현
• 베이스/박지원

• 드럼/윤혁성

프로그램

Merry go round of life, Turnaround, How high the moon, Lady bird 등

8일(목) 오후 8:00 Jazz duo story



재즈 피아니스트 민주신과 베이스스트 박주민의 듀오 'Pijubaju'가 들려주는 재즈 이야기.

프로그램

Old folks, After you've gone, Sail away, Speak no evil, Yes or no, Fee fi fo fum

15일(목) 오후 8:00 We're old-fashioned

재즈 보컬리스트 정화와 재즈 피아니스트 강한성으로 이루어진 듀오 'Oldie but Goodie'의 무대.



'Oldie but Goodie'는 오래되었지만 좋은 물건, 그리운 옛날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고전적인 멜로디

와 가사의 음악들을 들려준다.

• 베이스/신명준 • 드럼/추명진

16일(금) 오후 8:00 Fusion#3: Fourplay



음악계의 어벤저스로 불리는 '포플레이(Fourplay)'의 트리뷰트 콘서트.

1991년 결성된 후 현재까지 활동중인 살아있는 전설의 팀으로, 실력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포플레이의 음악을 흥영호 콰텟만의 사운드로 들려준다.

• 기타/송명기 • 색소폰/손태호
• 피아노/강혜인 • 베이스/신세영
• 드럼/흥영호

17일(토) 오후 7:00 Early spring



보컬 최은아, 피아니스트 장세연, 베이스스트 박주민으로 구성된 최은아 트리오의 무대.

힐링이 되는 감성 재즈를 들려주고 있는 최은아 트

리오는 이번 무대에서 조금 이르지만 따뜻한 새봄의 설렘을 느낄 수 있는 무대로 꾸민다.

23일(금) 오후 8:00 Ballad of the sad young man

정경수 콰텟이 준비한 분위기가 있는 겨울 재즈 공연.

프로그램

tea for two, I'm old fashioned, stablemates, ballad of the sad young man, triste, I mean you

• 피아노/정경수 • 기타/김경모
• 베이스/신명준 • 드럼/황준혁

24일(토) 오후 7:00 목관 악기로 들려주는 오페라 이야기



목관악상을 참이 들려주는 오페라 이야기.

• 플루트/박은주
• 오보에/문동원
• 클라리넷/조가진
• 피아노/강민희

• 작곡 및 해설/박민음

서윤진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2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문 의 | 서윤진 010-8353-5930



현재 광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서윤진 독주회.

서울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한 후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연주학 석사(MM) 및 박사학위

(DMA)를 취득한 서윤진은 미국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가진 데뷔 독주회를 통해 '황홀한 선율과 비범한 기교를 지닌 이 시대의 진정한 음악가'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현대작곡가 Sergey Slonimsky의 주요 작품인 '24 Preludes and Fugues' 연주를 통해 그의 음악 세계를 청중들에게 알리는 의미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2024

일 시 | 2월 4일 **일요일 오후 5: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문 의 | 라이브러리컴퍼니 070-4190-1289



영화보다 빛나는 영화음악, 그 여운을 다시한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무대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2024년 무대.

지브리 스튜디오의 미야자키 하야오의 모든 애니메이션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현존하는 최고의 영화&애니메이션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히사이시 조의 베스트 컬렉션을 대규모 풀 편성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로 선보이는 무대로, 그가 작곡한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및 영화의 OST를 지휘자 김재원이 지휘하는 위팔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려준다.

• 오보에/고관수 • 첼로/배성우

2월 스페이스움 음악회

일 시 | 2월 2일(금), 23일(금) 오후 7:30

스페이스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스페이스움 557-3369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예술’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 소통하는 스페이스움의 2월 무대.

2일(제530회) 2024 신년음악회

My Favorite Songs

동서대학교 외래 교수이자 부산성악가협회원, 독일가곡연구회, 벨리시미 성악연구회, 아모로제 성악연구회, 한소리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소프라노 장은영, 경성대학교 초빙교수이자 부산성악가협회 회장으로 있는 테너 김지호, 신라대학교 외래 교수이자 은빛 노을 합창단 지휘자, 프로무지카부산 전속 지휘자로 있는 베이스 박상진이 2024년 희망찬 새해를 노래하는 스페이스움 ‘2024 신년음악회’.



부산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일 시 | 2월 18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부산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010-8844-0506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오케스트라로 하모니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예술교육을 통해 ‘협동, 이해, 질서, 소속감, 책임감’의 가치를 일깨우고자 결성된 부산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창단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정현진의 지휘로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 3악장, 베토벤 ‘교향곡 제5번’ 1악장,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하이라이트 등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 지휘/정현진
- 강사/안정환, 강예지(바이올린), 윤지윤(첼로), 이지현(플루트), 차호철(클라리넷)

국내외 가곡 및 우리민요, 드라마 OST, 오페라 아리아 등 우리 귀에 친숙한 곡으로 관객들과 새해의 기쁨을 나눈다.

- 반도네온/김종완(친친탱고 대표)
- 피아노/조가영

23일(제531회) 김예지 바이올린 리사이틀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미, 카네기 멜론대학교에서 전역 장학생으로 석사과정과 연주자과정을 이수한 김예지 바이올린 독주회.

유학 중 애크린 심포니 1st violin 4th chair, 칸톤 심포니 오케스트라 2nd violin 부수석을 역임하고 Erie Philharmonic, Blue Chamber Orchestra 단원 등 다수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활동을 펼치던 김예지는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후학 양성을 위해 Cleveland State University를 거쳐 Youngstown State University 전역 장학생으로 음악교육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의 ‘샤콘느’를 시작으로 크라슬러의 ‘프렐류드와 알레그로’, 스트라빈스키의 ‘이탈리안 모음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이안나

김진희 박지은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Fall in Piano Duo

일 시 | 2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박지은 010-5799-5890

사제시간으로 인연을 맺은 피아니스트 김진희, 박지은의 듀오 리사이틀.

이번 무대는 피아노 듀오로 만나보는 ‘춤곡의 밤’으로, 사제시간의 완벽한 호흡과 짜임새 있는 구성의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피아노 듀오의 매력을 전한다.

프로그램

아렌스키/모음곡 제1번
라흐마니노프/모음곡 제2번 등



옥샘하모닉오케스트라 제18회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17일 토요일 오후 3: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예술기획 010-4909-7444



동래초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옥샘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옥샘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지난 2005년 결성된 후 매년 2월 정기연주회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한편, 해마다 동래음악제와 여름 나눔음악회, 옥샘 가을음악회, 학예제 등 해내 행사와 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을 찾아가는 음악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를 비롯한 외부 연주 행사 등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 지휘/박진홍 • 첼로/황유승
- 바이올린/박서윤 • 드럼/박선영

제497회 가람 초청음악회

제5회 One Piano Two Pianists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24일 토요일 오후 5:00

가람아트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가람아트홀 010-3855-8604



다운 피아노 앙상블의 기획연주회인 ‘One Piano Two Pianists’로 마련되는 제497회 가람 초청음악회.

‘One Piano Two Pianists’는 지난 2019년 1월, 첫 무대

를 가진 후 그동안 피아니스트 박나희, 오현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10명의 연주자와 함께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박나희, 오현지, 정승연, 허예원 등 4명의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독주를 비롯해 4 hands, 6 hands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겨울이 지나가는 자리

일 시 | 2월 25일 일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만 5세이상 관람)
문 의 | 첼리스트의 서재 010-5029-5807



송정에 자리한 문화공간 '첼리스트의 서재'가 매월 마련하는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무대. 전 세계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과 영화 OST, 그리고 우

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Kranse Ensemble의 연주로 만날 수 있다.

Kranse Ensemble은 첼리스트의 서재 공동대표, 어연히('어'디서든 '연'주 가능한 '히든 플레이스) 대표로 있는 첼리스트 이명로를 리더로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다.

- 첼로/이명로, 정은지, 이석민
- 피아노/박민희 • 아코디언/심성훈
- 플루트/신혜원

연극 행오버

일 시 | 1월 5일(금)-3월 24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 (2월 13일, 월요일 공연없음, 10일 오후 6: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16세이상 이상 관람)
문 의 | ㈜조은아트플러스 1588-2757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코믹 추리 스릴러극 '행오버'.

'행오버'는 지난 2014년 초연된 후 대학로에서 흥행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으로, 90분의 러닝타임 동안 단 한 순간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속도감 있는 전개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속죄로 인한 기억상실이라는 색다른 소재와 탄탄한 구성, 그리고 독보적인 캐릭터들이 펼쳐는 열연으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해운대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The e-골림 On Stage Concert
Salon Music

일 시 | 2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학생 40% 할인)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해운대문화회관이 지역 예술인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고 관객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한 해운대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The e-골림 On Stage'.

'The e-골림 On Stage'는 Emotion(희노애락의 감정, 정서)과 이골림을 표하는 해운대문화회관의 감성충만 소통형 공연으로, 연주자와 관객이 하나 되어 '무대 위' 한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공연이다.

2월 무대에서는 콘서트가이드 김성민의 진행으로, 클래식 기타리스트 김경태, 바이올리니스트 신보경, 카운터 테너 김대경의 특별한 앙상블이 펼쳐진다.

태양의 서커스 루치아

일 시 | 1월 13일(토)-2월 4일(일) 수-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3:00, 7:30, 토요일 오후 3:3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30 신세계 센텀시티 빅박스
입 장 료 | VIP석 29만원, SR석 19만원, R석 16만원, S석 13만원, A석 9만원, B석 7만원
문 의 | ㈜마스트엔터테인먼트 02-541-6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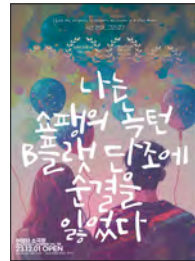
'태양의 서커스' 아트의 정점이라고 불리는 '루치아' 부산공연.

'루치아'는 지난 2016년 4월 초연된 후 갖는 첫 내한공연으로, 멕시코의 문화, 자연, 신화를 비롯한 비주얼과 매혹적인 곡에 퍼포먼스로 선보이며 강렬함과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특히 '루치아'는 스페인어로 '빛(luz)'과 '비(lluvia)'의 소리를 합쳐 만들어진 단어로, 투어 공연 최초로 1만리터의 물을 도입, 더욱 드라마틱하고 환상적인 예술의 경지를 선보인다.

연극 나는 쇼팽의 녹턴 B플랫 단조에
순결을 잃었다

일 시 | 2023년 12월 1일(금)-2024년 2월 29일 (목)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어댑터 플레이스
입 장 료 | 전석 3만5천원(16세 이상 관람)
문 의 | 어댑터 플레이스 911-1447



지난해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예술가가 공동제작하여 호평을 받았던 연극 '나는 쇼팽의 녹턴 B플랫 단조에 순결을 잃었다'.

영국의 주목받는 신예 작가 세바스찬 가드너의 데뷔작이기도 한 이번 작품은 4년 전 우연히 사랑에 빠진 남녀가 MBTI, 정치성향, 집안배경, 성별 차이, 집안 소득 수준 등 모든 것이 달라 계속해 대립하면서도 서로 닮아가는 이야기로 현실적인 대사와 사랑이 갖는 파괴적인 요소까지 가감 없이 보여준다.

- 연출/김가영
- 출연/이설, 이도영 • 플루트/신혜원

연극 크레이지 패밀리

일 시 | 1월 18일(목)-3월 10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공휴일 오후 2:30, 5:00 (2월 9일·13일, 월요일 공연없음, 10일 오후 5: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만 18세이상 이상 관람)
문 의 | ㈜조은아트플러스 1588-2757



대학로를 사로잡은 어른들을 위한 연극 '크레이지 패밀리'.

돈 많은 장인과 갑질갑 부인에게 큰 소리 한번 못내고 살던 주인공은 남들에게 말 못할 은밀한 취미가 있었으니 바로 와이프를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여자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 어느날 병원에서 취미생활을 즐기려는 주인공 앞에 그의 부인과 장인이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숨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의 스릴 만점 대환장 추격전이 펼쳐지는데...

독특한 소재로 2011년 시작부터 뜨거운 관심과 함께 등장한 연극 '크레이지 패밀리'는 신선도 100%의 유쾌하고 도발적인 성인용 29금 코미디극으로 관객과 만나왔다.

뮤지컬 **한글용사 아이야-사라진 한글을 찾아라!**

일 시 | 2월 17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18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KBS 부산홀**
입 장 료 | 1층석 6만6천원, 2층석 4만4천원 (24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동그라미그리기 1577-4868



EBS의 독창적인 한글 어린이 프로그램인 '한글용사 아이야'를 뮤지컬로 제작한 '한글용사 아이야-사라진 한글을 찾아라!'.

2021년부터 방영중인 '한글용사 아이야'는 한글을 읽고 쓰고 싶어 하는 쌍둥이 자매 훈민, 정음이 한글용사 아이야의 도움을 받아 한글을 익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훈민, 정음이와 함께 한글 놀이로 가족이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가족뮤지컬 그 첫 번째 이야기가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펼쳐진다.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일 시 | 2월 24일 토요일 오후 2:00, 6:00
 25일 일요일 오후 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R석 8만8천원, S석 6만6천원
문 의 | ㈜아이스타미디엄컴퍼니 1644-4146



'K-신파', '가족 신드롬'을 일으킨 레전드 스테디셀러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이번 작품은 2009년 1월 초연 이후 15년 간 한해도 쉬지 않고 전국 무대에 오르며 누적 관객 87만명을 넘긴 스테디셀러 작품으로, 딸을 낳은 것이 살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는 친정엄마 최 여사가 시한부 딸 미영의 죽음을 앞두고 2박 3일을 함께 보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초연부터 무대를 지켜온 국민엄마 강부자와 친숙하고 선한 이미지의 딸 윤유선이 TV드라마를 보는 듯한 친숙한 연기로 엄마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애타한 감정을 그려낸다.

가족뮤지컬 **로보카폴리-잡아라! 황금트로피!**

일 시 | 2월 24일-25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KBS부산홀**
입 장 료 | 전석 6만6천원(24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45% 할인)
문 의 | ㈜더화랑이엔티 1800-6567



2024년 산악구조대와 함께 새롭게 돌아온 뮤지컬 '로보카폴리-잡아라! 황금트로피'.

'로보카폴리'는 경찰차 폴리와 힘센 소방차 로이, 영리한 구급차 엠버, 재빠른 헬리콥터 헬리가 한 팀을 이룬 구조대 이야기로, 2011년 첫 방영 후 아직까지도 어린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교육용 애니메이션이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산악구조대 마크, 버기가 공연장에서는 처음 친구들과 만나며, 뮤지컬 최초로 선보이는 레이저 특수효과가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솔 댄스 컴퍼니 제2회 무용공연 **FERVOR**

일 시 | 2월 4일 일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솔 댄스 컴퍼니 010-2844-3767



부산지역 예술고등학교 무용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초·중학생들로 구성된 솔 댄스 컴퍼니의 정기공연.

차세대 무용계를 이끌어 나갈 유망주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로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코펠리아 중 'waltz of the hours', 파키타 중,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발레), Awake, Seven's, 이제는 뜨겁지 않은 그대들에게(현대무용), 강선영 류 태평무, 검무, 설장고와 소고놀이(한국무용) 등

- 사회,무용/Sunny Day, Boss

골든캐츠 '숨결: 내마음의 거울' 정기공연

일 시 | 2월 25일 일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문 의 | 골든캐츠 010-5097-1773



'한국무용을 일상 속으로'라는 모토로 한국의 전통예술을 일반 대중에게 교육과 공연을 통해 알려나가고 있는 골든캐츠의 정기공연.

대표이자 예술감독인 한양대학교 정승혜 교수를 주축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골든캐츠의 이번 무대는 한국무용 공연을 최신 트렌드에 맞춰 창작한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공연으로, 일반인들이 즐겨 듣는 대중 가요에서부터 한국적 정서가 가미된 안에는, 심규선의 곡을 기반으로 창작된 이색적인 한국무용 콘텐츠를 선보인다.

- 대표, 예술감독/정승혜
- 공동연출/김재윤, 박주현
- 기획, 지도/신현지

행사 문화와 예술로 만나는 부산 **2월 아카데미 시네바움**

일 시 | 2월 2일(금)·16일(금) 오후 2:00 **우동불** (백산기념관 앞)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시네바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2일(금), 16일(금) **우동불** 중국어로 낭독하는 당시 삼백수

5일(월) 시네마 언노운: 보이지 않는 영화들 '아듀, 오맹달(2021, 7min)', '김밥이예요!(2023, 13min)'

- 진행/이강욱(영화감독), 김영광(영화평론가)
- 19일(월) 저자와의 북토크_자유의지, 그 난제로의 초대
 - 강사/김남호(울산대 철학과 교수)
- 26일(월) 북클럽의 인문학_읽은 책& 만든, 만들 책 이야기
 - 강사/박정은(부산여성신문 편집국장)

2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일시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00,
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전
10:00 오페라바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매주 월요일에는 고전, 낭만주의 관현악을, 금요일에는 R. 슈트라우스 오페라 특집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직장인을 위한 특별편성으로,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오페라(R. 슈트라우스 특집)/살로메(2일~3일), 엘렉트라(9일~10일), 장미의 기사(16일~17일),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23일~24일)
콘서트/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4번'(5일, 10일),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3번', 슈미트 '교향곡 제2번'(12일, 17일), 말러 '교향곡 제5번'(19일, 24일), 말러 '교향곡 제

4번'(26일, 3월 2일)
일요특선 오페라/도니제티 '사랑의 묘약'(4일), 베르디 '오텔로'(11일), 비제 '카르멘'(18일), 마스네 '베르테르'(25일)

김옥균의 클래식뮤직아카데미 세계의 클래식음악연주회 영상 해설감상회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3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장료 2개월 10만원
문의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뮤직아카데미'.

불면증, 우울증 치료에 뛰어난 클래식음악 감상과 더불어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 유명 작곡가

의 탄생지 기행, 국내외 최신 클래식연주회 실황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미사음악특집-장엄 미사(베토벤), 슬픔의 성모(로시니)
앙드레 류-미국공연실황
월드뮤직스페셜 '라틴클래식음악여행'
바로크 음악특집 '헨델의 생애와 음악'
관악기협주곡의 매력-모차르트, 베버, 하이든, 비발디
오페라감상실-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 특집

제192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행복, 고향 주제 시낭송회

일시 2월 17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장료 무료
문의 알바트로스 시낭송문화회
010-63670-0149

- 출연/정길언 시인 외 화원&초대 시인
- 초청 음악가/바리톤 한성권, 배웅, 하모니카 김진규

부산현대미술관 기획전 노래하는 땅

일시 2023년 9월 23일(토)- 2024년 2월 18일(일) 부산현대미술관 전시실
문의 부산현대미술관 220-7400~1



토착어의 재생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류의 위기를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6개의 주제어를 만들고 그에 해당하는 토착어와 예술작품을 짝을 지어 보여주는 기획전 '노래하는 땅'.

고은사진미술관+KT&G 상상마당 올해의 작가전 -서동신, 조준용, 조진섭

일시 2023년 11월 25일(토)-2024년 2월 18일(일)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 개관 특별전 가장 가깝고, 가장 은밀한 역사

일시 2023년 12월 22일(금)- 2024년 2월 26일(월)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 금구미술관
문의 부산근현대역사관 607-8001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 개관 특별전 마! 새리라! 야구도시 부산의 함성

일시 2023년 12월 27일(수)- 2024년 3월 17일(일)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 기획전시실
문의 부산근현대역사관 607-8001



전국에서 최고의 야구 열기를 자랑하는 '구도(球都) 부산'을 테마로 한 특별전.

'구도 부산, 타석에 오른다', '프로야구의 전성시대', '내 주머니 속 야구' 등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구의 도입에서 고교야구와 아마야구 전성기를 거쳐 프로야구에 이르기까지 부산 야구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에바 알머슨 특별전 : 에바 알머슨, Andando

일시 2023년 12월 1일(금)- 2024년 3월 24일(일) 피아크 2,3F
입장료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천원, 어린이 1만 3천원(예매시할인)
문의 P.ARK 070-8693-9758

'살아있는 말 모임' 김대연 초대개인전

일시 1월 13일(토)-2월 12일(월) 갤러리 한스
문의 갤러리 한스 784-0233



2019년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전국무용제 캘리그라피 디자인, 포천막걸리체 개발에 참여한 실력파 작가로, 캘리그라퍼라는 외국말이 싫어 '덧글씨작가'라는 순우리말로 활동하고 있는 김대연 작가 초대 개인전.

February 2024

**(재)부산문화회관
2024 상반기
문화예술아카데미 개강**



그동안 차별화된 강좌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가 2024년 상반기, 보다 새롭고 다채로운 강좌로 시민들과 만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민들을 위한 교육공간인 배움터가 새롭게 조성되면서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아카데미 공간을 한 곳으로 모아 수강생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전용공간 확대로 보다 다양한 강좌의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난 1월 10일 개관한 배움터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지하 1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대규모 연습실과 세미나실, 배움실 등 17곳의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올해 상반기 아카데미에서 가장 시선을 사로잡는 신규 강좌는 '부산문화회관 윈드 오케스트라'로, 악기 연주에 관심 있는 부산 시민들로 오케스트라를 구성, 음악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 가치를 실현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 트롬본 수석 정선화가 지휘를 맡아 오케스트라를 이끌며, 강좌를 통한 음악적 공감대 형성과 기량 향상 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노래를 좋아한다면 또다른 신규 강좌인 '부산문화회관 합창단'에 시선을 돌려보자. 서울가톨릭대학교 외래교수이자 전문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바리톤 심정보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당당히 무대에 설 수 있는 합창단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반면, 자신만의 레퍼토리를 소화할 수 있는 성악가를 꿈꾼다면 '심정보와 함께하는 가곡교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여타 강좌에서 만날 수 없는 가야금, 거문고 실기 강좌가 새롭게 신설된다. 우리나라 전통 국악기를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특히 수준 높은 실력을 갖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박하혜(거문고), 정세희(가야금)가 강사로 나서 차별화된 강좌를 선보인다.



매년 시민들을 클래식 기타의 세계로 입문시켜온 '클래식 기타' 강좌는 올해도 계속 이어진다. 30년 이상 클래식 기타리스트로 활동해온 고충진과 함께하는 강좌로, 입문자를 위한 초급과정과 연습곡 연주를 통해 다양한 곡을 익혀보는 중급과정이 함께 개설되어 있어 본인의 실력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이외에도 발레를 처음 접하는 초급자들을 위한 '슬림 업 스트레칭 발레'와 주된 발레 테크닉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프리미엄 발레', 현대무용의 자유로운 움직임 속에서 개인의 정서적 경험을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춤추는 현대무용', 기초적인 배우 훈련을 통해 나의 내면을 이해해보는 '나의 이야기, 연극이 되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된다.

미술 강좌로는 김은주 작가가 진행하는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을 만날 수 있다. 기술 위주의 일반적인 드로잉 수업과는 달리 스스로 선택한 주제를 원하는 재료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는 시간으로, 여타의 미술 실기 수업과는 달리 자신만의 독창적인 드로잉 세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어 고유의 색깔을 찾으려는 수강생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해 '감각의 드로잉'을 통해 수강생들과 만났던 배영숙 강사는 올해 '서양화(풍경화)'로 아카데미를 찾는다. 이번 강좌는 수많은 미술 장르 중 팝아트에 집중하여 풍경화로 풀어내 보는 시간으로,

컬러풀하고 단순화시킨 풍경들을 과슈 물감으로 그려보며 풍경화를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온 인문·교양 강좌로는 우선 안용태 인문학 강사와 함께 하는 ‘영화로 떠나는 인문학’이 마련되어 있다. 영화를 통해 철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영화 속 캐릭터를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다. 이밖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입체적인 명강의 ‘유혁준의 음악이야기’와 자신만의 색깔로 포

트폴리오를 채워나갈, 베테랑 사진작가 뿌리아 김과 함께하는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은 올해도 계속된다.

상반기 문화예술아카데미는 오는 3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강좌별로 진행되며, 1월 29일부터 정원 마감 시까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및 전화(051-607-6000)를 통해 수강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강의 커리큘럼 및 강사 프로필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부산문화회관 배움터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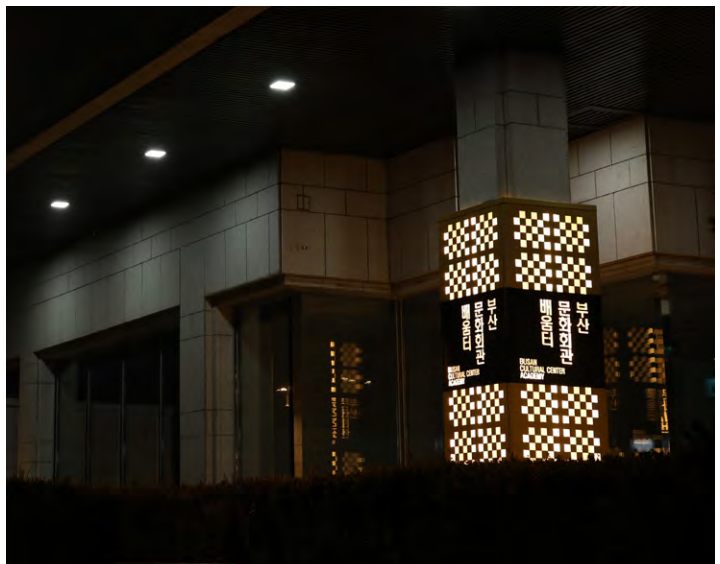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인 ‘부산문화회관 배움터’가 지난 1월 10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유휴공간으로 공연장의 기능을 하지 못했던 챔버홀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된 ‘부산문화회관 배움터’는 총 327평(1,080㎡) 규모로, 대규모 연습실 1곳을 비롯하여 배움실, 세미나실, 회의실 등 총 17개의 교육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배움터 개관에 따라 기존 중극장 및 챔버홀 지

하에 분산되어 있던 아카데미 강의실이 한 곳에 집중되면서 수강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되는 ‘2024년 상반기 문화예술아카데미’가 배움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10일에는 이정필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부산시 주요 인사, 부산시립예술단,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움터 개관식을 가진 바 있다.

이정필 대표이사는 “이번 배움터 조성으로 문화예술 교육의 장이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확대됨으로서 잠재적인 미래 관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문화를 가까이에 두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도 제10기 SNS서포터즈 제2기 SNS주부홍보단 출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재)부산문화회관 제10기 SNS서포터즈가 2월 29일 발대식을 갖고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가정의 교육, 문화와 소비의 주체가 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SNS주부홍보단도 올해 2월 말 제2기가 출범한다.

평소 문화예술 및 공연 등에 관심이 많은 부산지역 거주자로 구성된 (재)부산문화회관 SNS서포터즈와 SNS주부홍보단은 그동안 (재)부산문화회관 및 부산시립예술단이 주최하는 공연, 전시 소식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공유하며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부산시민들에게 알려왔다. 특히 SNS서포터즈와 SNS주부홍보단은 그동안 홍보 타킷층을 각각 2, 30대 중심의 젊은 세대와 가족으로 세분화하여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왔다.

이번 제10기 SNS서포터즈와 제2기 SNS주부홍보단은 현재 모집 중에 있으며,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이메일(SNS서포터즈 rarco@bscc.or.kr, SNS주부홍보단 southseas@bscc.or.kr)로 2월 6일과 2일까지 각각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제9기 SNS서포터즈와 제1기 SNS주부홍보단은 지난해 12월 11일과 12일 각각 수료식을 갖고 서포터즈 활동을 마무리한 바 있다.

석포교회 정기회원 단체가입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정기 회원에 단체가입하고 있는

석포교회가 올해도 정기회원에 단체가입했다. 부산문화회관 인근에 자리한 석포교회는 지난 1969년 개척된 후 ‘하나님께 기쁨 되고 세상에 소망 주는 교회’가 되고자 사역 활동과 더불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한편,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제도는 그동안 다양한 할인 혜택과 초대권 증정, 공연정보 제공 등 부대서비스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사랑받으며 가입이 늘고 있다.

부산시립합창단 화이트데이 브런치 콘서트 이벤트 <당신만의 소중한 사랑> 사연 공모

부산시립합창단에서는 화이트데이(3월 14일)에 열리는 ‘화이트데이 로비콘서트’ 특별 이벤트로, ‘당신만의 소중한 사랑’이 담긴 여러분의 특별한 사연을 공모합니다. 연인뿐 아니라 친구, 부부, 부모님, 은사님 등 당신만의 소중한 사랑이 담긴 사연을 보내주시면, 합창단 자체 투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 공연 초대권을 보내드리며, 당일 공연 중 사연 소개와 사랑 노래 제공, 필요시 프로포즈 기회 등 특별한 이벤트를 제공해드립니다.

- ♥ 접수기간: 2024. 1. 15.(월)~2. 26.(월) 17:00까지 도착분
- ♥ 접수: 이메일(eunji89@bscc.or.kr) 및 우편 접수 ※ 자유양식으로 적되 성명 및 연락처 기입 필수
- ♥ 당첨자 발표: 2024. 2. 27(화) 개별연락
- ♥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32

(재)부산문화회관

2024 문화예술아카데미 상반기 수강생 모집

2024. 1. 29. (월) ~ 정원 마감 시

- 온라인 접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 아카데미 ▶ 수강신청
- 오프라인 접수·문의 051-607-6000
- 수강신청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상·하반기 학기별(4개월)로 운영됩니다.
2. 청강 및 대리수강, 일일수강 불가합니다.
3. 강좌별 최소 정원 미달 시 미개설 될 수 있습니다.
4. 수강 기간 중, 수강생 대상 무료 주차권이 제공됩니다.

수강신청 QR CODE



분야	강의명	기간	일시	회차	인원	수강료
발레	프리미엄 발레	3. 4. ~ 6. 17.	월, 10:30 ~ 12:10	15	12	240,000
드로잉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초급)	3. 4. ~ 6. 17.	월, 10:30 ~ 12:30	15	15	240,000
드로잉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응용)	3. 4. ~ 6. 17.	월, 14:00 ~ 16:00	15	15	240,000
합창	부산문화회관 합창단	3. 4. ~ 6. 17.	월, 14:00 ~ 16:00	15	40	240,000
인문학	영화로 떠나는 인문학	3. 5. ~ 5. 7.	화, 11:30 ~ 13:30	10	30	240,000
가곡	심정보와 함께하는 가곡교실	3. 5. ~ 6. 11.	화, 14:00 ~ 16:00	15	40	240,000
거문고	거문고	3. 5. ~ 6. 11.	화, 19:00 ~ 20:30	15	6	240,000
발레	슬림 업 스트레칭 발레	3. 6. ~ 7. 3.	수, 10:30 ~ 12:10	15	12	240,000
연극	나의 이야기, 연극이 되다	3. 6. ~ 7. 3.	수, 13:30 ~ 15:30	15	15	240,000
오케스트라	부산문화회관 윈드오케스트라	3. 6. ~ 7. 3.	수, 19:00 ~ 22:00	15	40	240,000
가야금	가야금	3. 6. ~ 7. 3.	수, 19:00 ~ 20:30	15	8	240,000
현대무용	춤추는 현대무용	3. 6. ~ 7. 3.	수, 19:30 ~ 21:10	15	15	240,000
서양화	서양화(풍경화)	3. 7. ~ 6. 20.	목, 19:00 ~ 21:00	15	10	240,000
인문학	유혁준의 음악이야기	3. 14. ~ 5. 30.	목, 14:00 ~ 16:00	10	40	240,000
클래식기타	클래식기타(초급)	3. 8. ~ 6. 14.	금, 10:30 ~ 12:30	15	12	240,000
클래식기타	클래식기타(중급)	3. 8. ~ 6. 14.	금, 14:00 ~ 16:00	15	12	240,000
사진학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초급)	3. 9. ~ 6. 15.	토, 10:00 ~ 12:00	15	20	24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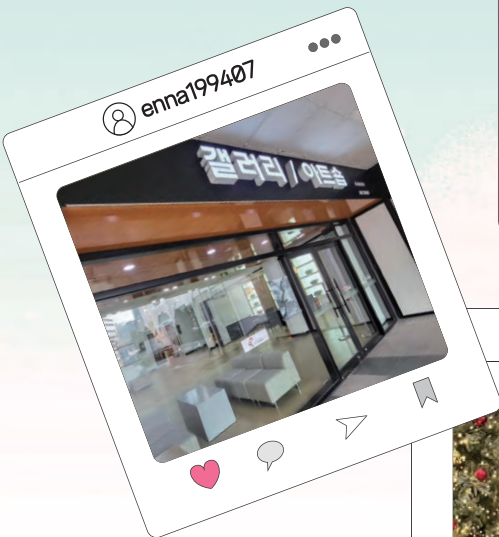
* 강의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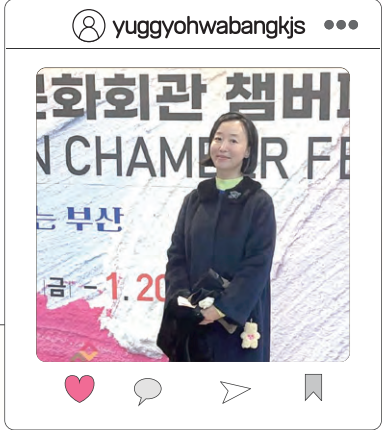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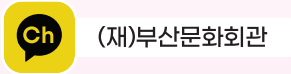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 올려주시면 매월 5명 추첨을 통해 예술의초대에 사진 게재 및 소정의 상품(1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2월 이벤트 필수 해시태그
#부산문화회관.다녀왔어요
(또는 #부산시민회관.다녀왔어요)
#예술의초대.1월호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하세요!



<예술의초대>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올해로 창간 32주년을 맞는 월간 <예술의초대>는 부산의 대표적인 공연예술 매거진으로, 공연, 전시, 문화행사 등 부산지역의 다양한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의 다양성과 지역문화를 짚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획 기사를 게재하며 부산의 문화와 시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자와 소통하며 품격높은 공연예술 매거진으로 자리매김할 수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예술의초대>에 공연·전시·행사 일정을 게재하려면 **전월 15일까지** 관련 내용 및 사진(포스터)을 E-mail(book2580@bscc.or.kr)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단,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전시·행사에 한해 가능합니다.

✿ <예술의초대>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공연 관람 후 리뷰나 기대평,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글과 사진, 그림 등을 E-mail(book2580@bscc.or.kr)로 보내주시면 엄선 후 지면에 게재해드립니다. 지면에 게재된 원고에 한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혹은 상품을 드립니다.

✿ <예술의초대>에서는 매월 유료 지면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료광고 게재를 원하시면 홍보마케팅팀(607-6045)으로 문의 바랍니다.

✿ <예술의초대>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구독가능합니다. 정기회원이 아닌 경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비롯 금정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등 區 문화회관, 그리고 서면 영광도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4 상반기 공연프로그램(1월~6월)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로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 시 1,000원 추가 할인

전화예매 |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 ARS 1번 외국어 문의 | ARS 2번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날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날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마감은 공연 1일전 14시 ※ 취소마감은 공연 1일전 17시
공연 1일 전~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ARS 1번)

2024. 1-6월

January - June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2024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4. 1. 10.(수)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지휘 | 세이코 김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 바이올린 | 한수진 • 소프라노 | 박하나
- 바리톤 | 한규원 • 사회 | 박찬민

※ 7세 이상 관람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개막연주회 스테판 피 재키브 <Mozart & Mendelssohn Concertos with Busan Chamber Festival Orchestra>

문화 | 중극장 2024. 1. 5.(금) 7:3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바이올린 | 스테판 피 재키브
- 연주 | 부산체임버페스티벌오케스트라

※ 7세 이상 관람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첼리스트 요나 김 & 발레리나 줄리아 로 <Songs That Make Us Dance>

문화 | 중극장 2024. 1. 9.(화) 7:3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첼로 | 요나 김
- 발레리나 | 줄리아 로
- 피아노 | 이윤수

※ 7세 이상 관람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Masters and Masterpieces I

문화 | 중극장 2024. 1. 12.(금) 7:3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바이올린 | 스테판 피 재키브, 대니 구
- 비올라 | 앤드류 링
- 첼로 | 요나 김 • 클라리넷 | 김윤아

※ 7세 이상 관람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학교 실내악 축제

문화 | 챔버홀 2024. 1. 13.(토) 5:00pm
전석 10,000원

- 출연 |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부산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술영재교육원

※ 7세 이상 관람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대니 구의 <별이 빛나는 부산> 토크콘서트

문화 | 중극장 2024. 1. 16.(화) 7:3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바이올린 | 대니 구 • 피아노 | 문재원

※ 7세 이상 관람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All about Tango: 이승민 x 친친탱고 x 콰르텟 BCMS

문화 | 챔버홀 2024. 1. 19.(금) 7:30pm
전석 20,000원

- 출연 | 팬텀싱어4 이승민, 친친탱고, 콰르텟 BCMS

※ 7세 이상 관람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폐막연주회 Masters and Masterpieces II <양상블 오페스>

문화 | 챔버홀 2024. 1. 20.(토) 5:00pm
전석 20,000원

- 바이올린 | 백주영, 송지원
- 비올라 | 김상진 • 첼로 | 김민지
- 피아노 |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 7세 이상 관람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문화 | 중극장 2024. 1. 27.(토), 3. 23.(토), 5. 18.(토) 5: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해설 바이올린 | 박소연
- 연주 | 엘 콰르텟 외

※ 5세 이상 관람



연극 <돌아온다>

문화 | 중극장 2024. 3. 1.(금) 7:30pm, 3. 2.(토) 3:00pm
R석 55,000원 S석 33,000원

- 프로듀서 | 김수로 • 예술감독 | 신영섭
- 작가 | 선욱현 • 연출 | 정범철
- 출연 | 강성진, 김수로 등

※ 14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4. 3. 5.(화) 7:3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피아노 | 임동혁

※ 7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연광철 & 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4. 3. 13.(수) 7:3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베이스 | 연광철 • 피아노 | 선우예권

※ 7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황수미&안종도 듀오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4. 6. 19.(수) 7:3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소프라노 | 황수미
• 피아노 | 안종도
※ 7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김유빈 플루트 리사이틀

문화 | 중극장 2024. 8. 28.(수)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플루트 | 김유빈
※ 7세 이상 관람



게임음악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4. 3. 9.(토) 5:00pm
• 지휘 | 진솔
※ 티켓 오픈 추후 공지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
2024 마티네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4. 3. 15.(금), 6. 28.(금) 11:00am
전석 20,000원
• 지휘 | 차웅, 정주영 • 해설 | 심정옥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KNN방송교향악단
※ 7세 이상 관람



이 시대 중년들을 위한 유쾌한 위로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문화 | 중극장 2024. 4. 6.(토) 3:0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작, 연출 | 김영순
• 출연 | 이홍렬, 김태향, 우상민, 김정하, 이운미, 허윤
※ 16세 이상 관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첼로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4. 5. 8.(수) 7:30pm
VIP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첼로 | 미샤 마이스키 • 바이올린 | 사샤 마이스키
• 피아노 | 릴리 마이스키
※ 7세 이상 관람



문화예술 '찐팬'을 위한 렉처콘서트
미술관 옆 콘서트홀

문화 | 중극장 2024. 5. 10.(금), 7. 19.(금),
9. 6.(금)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미술 해설 | 이주현
• 음악 해설 | 손지현
• 연주 |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 7세 이상 관람



한때 우리는 모두 '야구왕'이었다!
창작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문화 | 대극장 2024. 6. 4.(화)~6. 9.(일)
※ 티켓 오픈 추후 공지



부산시민회관

EBS방영 원작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가 클래식 음악을 만나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I - 홍학의 무도회

시민 | 소극장 2024. 2. 24.(토) 11:00am
전석 30,000원
※ 전 연령 관람



차이콥스키의 음악과 우아한 발레의 완벽한 콜라베이션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시민 | 대극장 2024. 3. 15.(금) 7:30pm, 3. 16.(토) 2:00pm
VIP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5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우리 아이 첫 클래식!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II - 악어의 양치시간

시민 | 소극장 2024. 4. 20.(토) 11:00am
전석 30,000원
※ 전 연령 관람



세계를 감동시킨 뮤지엄 판타지 어드벤처 가족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

시민 | 대극장 2024. 5. 11.(토)~12.(일)
11:00am, 3:00pm
VIP 55,000원 R석 44,000원 S석 22,000원
※ 24개월 이상 관람



스튜디오 지브리 OST와 Last Carnival,
Long Long Ago 등 Acoustic Café 대표곡

**어쿠스틱카페 내한공연
WITH 스튜디오 지브리 OST**

시민 | 대극장 2024. 6. 15.(토) 5:00pm
VIP 77,000원 R석 55,000원 S석 33,000원
※ 7세 이상 관람



부산연극이 낳은 괴물신인 '열집우주'의 최신작
연극 <갈림길에 선 여자>

시민 | 소극장 2024. 6. 22.(토) 3:00pm
전석 20,000원
※ 12세 이상 관람



동화의 감동과 발레의 우아함이 환상적으로 그려진 명작 발레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시민 | 대극장 2024. 7. 12.(금) 7:30pm, 7. 13.(토) 2:00pm
VIP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5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7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 거인

문화 | 대극장 2024. 1. 19.(금) 7:30pm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 지휘 | 백승현
• 피아노 | 정규빈



기획음악회 실내악 시리즈 I <현의 울림>

문화 | 중극장 2024. 2. 6.(화) 7:30pm



제608회 정기연주회 보로딘을 위하여

문화 | 대극장 2024. 2. 27.(화) 7:30pm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 지휘 | 최희준
• 바이올린 | 송지원



기획음악회 실내악 시리즈 II

문화 | 중극장 2024. 3. 8.(금) 7:30pm



제609회 정기연주회 고전적 낭만

문화 | 대극장 2024. 3. 22.(금) 7:30pm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 지휘 | 백승현
• 피아노 | 김영호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I

문화 | 대극장 2024. 4. 18.(목) 7:30pm
• 지휘 | 키릴 카라비츠



제610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과 키릴 카라비츠

문화 | 대극장 2024. 4. 19.(금) 7:30pm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 지휘 | 키릴 카라비츠
• 첼로 | 문태국



기획음악회 우리아이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4. 5. 10.(금) 7:30pm
• 지휘 | 백승현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줌인(Zoom-in) 1

문화 | 중극장 2024. 5. 24.(금) 7:30pm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II

문화 | 대극장 2024. 6. 20.(목) 7:30pm
• 지휘 | 백승현



제611회 정기연주회 하지축제

문화 | 대극장 2024. 6. 21.(금) 7:30pm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 지휘 | 백승현
• 기타 | 박규희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_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ABENDLIED 어둠을 밝히는 빛

문화 | 대극장 2024. 2. 29.(목) 7:30pm
• 객원지휘 | 그랜트 거슨(Grant gershon)



특별연주회 하이트데이 브런치 콘서트

문화 | 대극장 로비 2024. 3. 14.(목) 11:00am
• 지휘 | 임희준



제192회 정기연주회 어린이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

문화 | 대극장 2024. 5. 3.(금) 7:30pm
5. 4.(토) 11:00am, 3:00pm
• 지휘 | 이기선 • 연출 | 김지웅
• 출연 | 2310 밴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작곡 및 시놉시스 | 이진실



제193회 정기연주회 부산·창원 교류음악회 <베르디 레퀴엠>

문화 | 대극장 2024. 6. 27.(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출연 | 부산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등



부산시립무용단

제89회 정기공연
The Man_장부의 삶

문화 | 대극장 2024. 5. 17.(금) 8:00pm, 5, 18.(토) 5:00pm
• 안무 | 이정윤



특별공연
이정윤의 댄스살롱

문화 | 중극장 2024. 7. 26.(금) 8:00pm,
7, 27.(토) 5:00pm
• 연출, 진행 | 이정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2024 신년음악회 <청룡이 나르샤>

문화 | 대극장 2024. 1. 24.(수) 7:30pm
• 지휘 | 이동훈



특별연주회
국악 브런치 콘서트 <국악 살롱, Salon>

문화 | 중극장 2024. 2. 27.(화) 11:00am
• 지휘 | 이동훈
• 진행, 토크 | 노주원 • 바리스타 | 전주연
• 노래 | BS부산오페라단 싱어즈 • 가수 | 최성수



제224회 정기연주회
부지휘자 김경수 취임연주회 <내일>

문화 | 대극장 2024. 3. 21.(목) 7:30pm
• 지휘 | 김경수
• 소리 | 박성희 • 랩퍼 | 정상수, 블리스
• 동래학춤 | 이성훈 외 • 구음 | 정선희
• 가수 | 정홍일



특별연주회
마리오네트 어린이 음악극 <영도의四季>

문화 | 중극장 2024. 5. 8.(수)~5. 9.(목) 11:00am

제225회 정기연주회
**창단 40주년 기념
<불혹의 나이, 100년을 꿈꾸며...>**

문화 | 대극장 2024. 5. 23.(목) 7:30pm
• 지휘 | 이동훈



특별연주회
퇴근길 음악회, 국악 힐링 타임

문화 | 중극장 2024. 6. 27.(목) 7:30pm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어린이왕자>

문화 | 중극장 2024. 2. 3.(토) 4:00pm, 7:00pm,
2. 4.(일) 1:00pm, 4:00pm
전석 10,000원
• 원작 | 생텍쥐페리 • 작사, 연출 | 김지용
• 작곡, 편곡 | 전현미 • 안무 | 홍충민



제76회 정기공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문화 | 중극장 2024. 3. 14.(목)~15.(금) 7:30pm,
3. 16.(토) 5:00pm
1층 20,000원 2층 10,000원
• 원작 | 레프 톨스토이 • 각색, 연출 | 정순지



제77회 정기공연
창작극장 <음악극 나혜석>

시민 | 대극장 2024. 5. 18.(토), 5. 24.(금)~25.(토),
5. 31.(금), 6. 1.(토) 평일 7:30pm, 토요일 5:00pm
전석 20,000원
• 대본, 작사, 연출 | 김지용 • 작사, 작곡, 편곡 | 백현주
• 안무, 움직임연출 | 홍충민 • 지휘 | 임희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4. 1. 27.(토) 5:00pm



제73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4. 3. 19.(화) 7:30pm
• 지휘 | 백승현



특별연주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 대극장 2024. 5. 21.(화) 7:30pm
• 지휘 | 백승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프렌들리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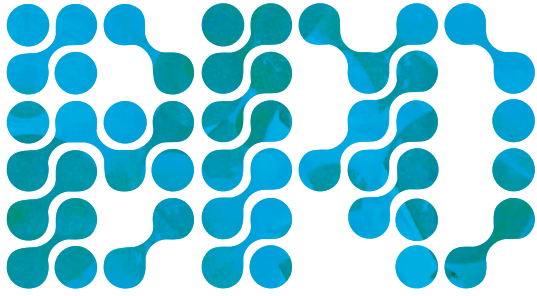
문화 | 중극장 2024. 3. 30.(토) 5:00pm
• 지휘 | 천경필



제163회 정기연주회
창작칸타타 Peace

문화 | 대극장 2024. 5. 24.(금) 7:30pm,
5. 25.(토) 5:00pm
• 지휘 | 천경필





2024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상반기 정기연주회

부지휘자 백승현

BPO
SYMPHONIC SEASON
2024

Seung Hyun Baek, Associate Conductor



607 Mozart and Mahler
부산시향, 거인

1월 19일 FRI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백승현
피아노 정규빈

Program

모차르트 / 피아노 협주곡 제23번
말러 / 교향곡 제1번 “거인”

608 in memory of Borodin
보로딘을 위하여

2월 27일 TUE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최희준
바이올린 송지원

Program

보로딘 / “이고르 공” 中 ‘폴로베츠인의 춤’
글라주노프 / 바이올린 협주곡
무소르그스키 - 라벨 / 전람회의 그림



609 A letter to Clara
고전적 낭만

3월 22일 FRI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백승현
피아노 김영호

Program

Program

슈만 / 피아노 협주곡
브람스 / 교향곡 제1번



610 BPO and Kirill Karabits
부산시향과 키릴 카라비츠

4월 19일 FRI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키릴 카라비츠
첼로 문태국

Program

리스트 / 교향시 제6번 “마제파”
쇼스타코비치 / 첼로 협주곡 제2번
스트라빈스키 / 페트르슈카

611 Midsummer festival
하지축제

6월 21일 FRI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백승현
기타 박규희



Program

애덤스 / 고속 기계를 탄 짧은 여행
로드리고 / 아랑훼즈 협주곡
베토벤 / 교향곡 제7번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재) 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회원카드 제시) | 제휴업체 할인(사정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MEMBERSHIP GUIDE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VIP



- 연회비** 10만원
초대권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 (전시) 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 (10~50%)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 연회비** 5만원
초대권 4매(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 (전시) 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 (10~30%)

MEMBER



- 연회비** 3만원
초대권 2매(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 (전시) 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가입

가입신청

(재)부산문화회관 051) 607-60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 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입장권 구입 시 불가능)

단체가입 할인

· 20명 이상(10%), 30명 이상 (20%),
 50명 이상 (30%)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가입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 607-60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개막연주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 재키브의 Mozart &
Mendelssohn **종료**

2024년 1월 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Songs That Make Us Dance **종료**

2024년 1월 9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World Stars in Busan **종료**

2024년 1월 12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학교 실내악 축제 **종료**

2024년 1월 13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20매)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별이 빛나는 부산> **종료**

2024년 1월 16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됩니다. 게재된 공연은 2024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Perfect Tango:친친탱고×콰르텟BCMS×이승민 **종료**

2024년 1월 19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20매)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폐막연주회

양상블오푸스 초청연주회 **종료**

2024년 1월 20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2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2024년 1월 27일(토) **종료**
3월 23일(토), 5월 18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홍학의 무도회

2024년 2월 24일(토) 오전 11: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연극 <돌아온다>

2024년 3월 1일(금) 오후 7:30, 2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종료**

2024년 3월 5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연광철&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종료**

2024년 3월 13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2024 마티네 콘서트

2024년 3월 15일(금), 6월 28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2024년 4월 6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악어의 양치시간

2024년 4월 20일(토) 오전 11: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미술관 옆 콘서트홀

2024년 5월 10일(금), 7월 19일(금), 9월 6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가족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

2024년 5월 11일(토)~12일(일) 오전 11:00,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어쿠스틱카페 내한공연

WITH 스튜디오 지브리 OST **종료**

2024년 6월 15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황수미&안중도 듀오 콘서트

2024년 6월 19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연극 <갈림길에 선 여자>

2024년 6월 22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종료**

2024년 7월 12일(금) 오후 7:30, 7월 13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김유빈 플루트 리사이틀

2024년 8월 28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문화예술팀(051-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자문위원



권흥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주)삼정 이사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한성테크(주)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그룹 회장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손명진
(전)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흥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김정기
임말섭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주)미성하이텍

임현숙

사상온누리약국

* 이사회원

강대일
강서룡
곽국민
권한상

웰딩시스템 대표
효승테크 대표이사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김성우
김암우
김홍재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전)연제구의장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김흥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서현석 한국교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신한춘 (주)금정화운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한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빌드건설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명인제약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홍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원기 삼강종합건설(주)
안금주 하나유치원 원장
안진우 경성대학교 교수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상수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성임 열가 대표
이수민 굿엔프랜드주식회사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임은자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정명선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민섭 (전)국회의장
정의화 속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종래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하정태 허혜영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 회원명 가나다순

■ 기본 예우

-  VIP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명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 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 회 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배우자 무료	본인· 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팀(607-6052)

2024 (재)부산문화회관 키즈 클래식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1월 27일(토)

'키즈 시네마 with
애니메이션 OST'

3월 23일(토)

클래식으로 만나는
명작 동화
'오즈의 마법사'

5월 18일(토)

클래식으로 만나는
명작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토요일 5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티켓 R석 3만원 S석 2만원

포진쥬

클래식 사파리

© GRAFIZIX EBS SBA

홍학의 무도회

2024. 2. 24.(토) 11:00a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Brunch Concert



가수 최성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 이동훈



바리스타 전주연

진행·토크 노주원

노래 BS부산오페라단 싱어즈

국악 브런치 콘서트 국악 살롱, Salon

Program

8090 국악관현악 명곡
· 합주곡 1번

Talk & Music [커피 이야기]
· 봄을 여는 소리

시 낭송 & 나도 아티스트
· 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 곡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

· 신아리랑 - O mio babbino caro - 봄이 오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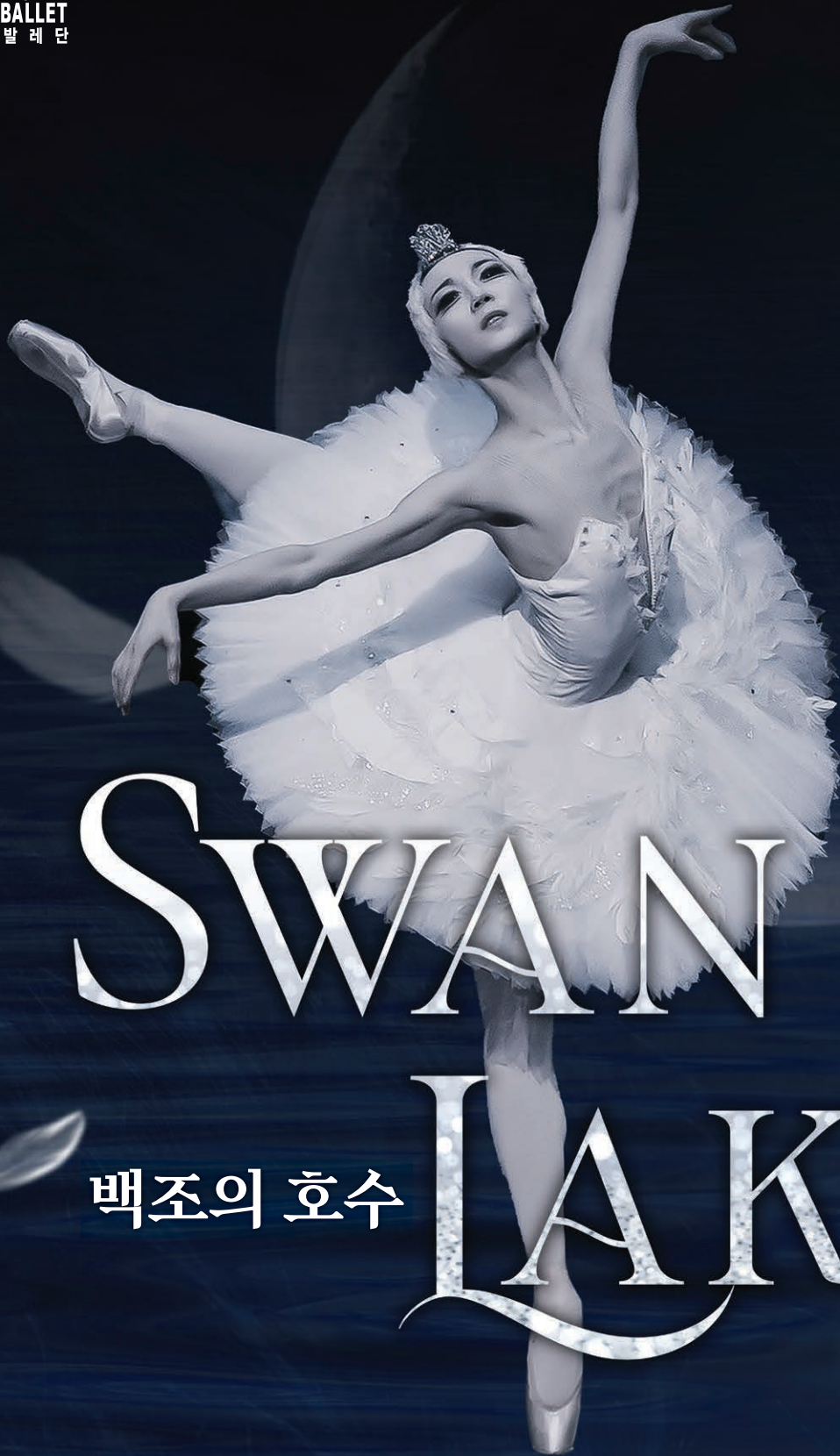
국악기로 연주하는 드라마 OST
· 전원일기 - 연인 - 아이리스

Talk & Song [그랜 그랜지] 최성수와 함께하는 레트로 감성 8090
· 동행 -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 Whisky on the Rock

2024. 2. 27 화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전석 10,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051) 607-6000 (ARS 1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4



SWAN LAKE

백조의 호수

2024. 3. 15.FRI 7:30PM / 16.SAT 2:00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출연 |  국립발레단 | 티켓 |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2만원 | 입장연령 | 7세 이상
|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 1번) |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interpark 티켓 1544-1555

2024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3.5 TUE 19:30

피아노 **임동혁** 리사이틀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 6만원 | S 4만원 | A 2만원



*Dong-hyek
Lim*

II

3.13 WED 19:30

베이스 **연광철**
피아노 **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 6만원 | S 4만원 | A 2만원



*Kwang-chul
Youn*



*Ye-kwon
Sun-woo*

III

6.19 WED 19:30

소프라노 **황수미**
피아노 **안종도**
듀오 콘서트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 6만원 | S 4만원 | A 2만원



*Su-mi
Hwang*



*Jong-do
An*

IV

8.28 WED 19:30

플루트 **김유빈** 리사이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 5만원 | S 3만원



*Yu-been
Kim*

World Competition Winner Series